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NNA



하나님의 은혜는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Dear Lord 주님,

From October 2022, 10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A TO PARE AND MARKET SELECT MARKET TO THE STORY OF THE ST

O - CHINARATTI A HUALI C

2

하고하다는 이렇 이러하여 보고 말했던데 이 병하면 보고 됐다.
 하고 보는 등 해 되고 하면에 이 보고 말했던데 이 병하면 본 보고 됐다.

프로 나가서 그리는 항목에게 당위해.

 중에 선생이 본급 기계되어 여기들이 어려면 제고 있는 용서 들어가는 그들의 아이지도 되어올 남인간이 그들이 있는 등 이건은 그들의 아이지로 되려를 보지 아니셔요.

가능하게 되어 계여 그의 작은 작용이 되어야기 행함 및 중설로

마이에 이었다 가나면서 지존을 받아 그의 행보다 중을 다 하여 되기를 위한느라하고

으로 이르의 권한 자녀님 작품하를 운송하다면 가나 전도 설립 중에 되는

트리니니이 아랫동 안반하여 하다 원이 장아네 치자에 하다고 가나인은 그의 본이 따게 아드리를 원하도라 제 원하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2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Bridge Alexand States on the

を なる いっちゃ

ARREST OF THE NAME OF THE PARTY.

지원 사람이 이 및 현대가 2010년 부터 사이를 변경하는 수를 보고 있었다. 기구에 보고된 이로 중구하고, 사람이 및 현실 사람들에게 어떤 고면에게, 기계에 간단, 아니라 이로, 그리고 되는 사람이 되는 수 되게 보는는 사람에게 본 기원에게 이로, 소리를 받던 나를에 가 어떤 소리를 받았다는 경기에 그런데요. 하나님에는 이번을 받던 나를에 가 는 것이 보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이번을 받던 나를에 가 된 것이 없는데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는 이번을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있다면 있다면 있다.

HARLEST AND ADDRESS OF THE PARTY NAMED IN

Which blue I have been a new hearth security and an engineering and a few an

These by the time and the first dependence which images is the compact of the best dependence and of times as the compact of t

Supply Word by Supply S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기쁨의 언덕으로]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Pacebook / Youtube 마토가?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 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 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4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 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 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1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모임장소Tip!

기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②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2 October

10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2	3 신명기 Deuteronomy 2장□	신명기 Deuteronomy 3장□
9	10 신명기 Deuteronomy 10-11장□	11 신명기 Deuteronomy 12장 □
16	17 신명기 Deuteronomy 19-20장 □	18 신명기 Deuteronomy 21장□
23	24	25 신명기 Deuteronomy 28장 □
30	31 신명기 Deuteronomy 33-34장□	

WE	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신명기 Deuteronomy 1장 □
5	신명기 Deuteronomy 4장 □	년명기 Deuteronomy 5-6장 □	7 Deuteronomy 7-8장 □	신명기 Deuteronomy 9장 □
12	신명기 Deuteronomy 13-14장 🗆	13 신명기 Deuteronomy 15장□	14 신명기 Deuteronomy 16-17장□	15 신명기 Deuteronomy 18장□
19	신명기 Deuteronomy 22장 ロ	20 신명기 Deuteronomy 23장 □	21 신명기 Deuteronomy 24-25장 □	22 신명기 Deuteronomy 26장 □
26	신명기 Deuteronomy 29장 □	27 신명기 Deuteronomy 30장 □	28 신명기 Deuteronomy 31장 □	29 신명기 Deuteronomy 32장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왜 읽어야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어떤보배인가

작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앤드류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3 예수님의 삶속에 나타난 겸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씀들을 몸소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완성함으로써 구원의 본질적인 본성과 삶(essential nature and life of the redemption)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며(He was nothing) 하니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뜻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 뜻, 영광 그리고 행하신 일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nothing)도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 (everything)을 드렸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자기 부인(entire self-abnegation), 절대적인 복종(absolute submission) 그리고 아버지에게 뜻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잃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롭게 여기셨으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자리에 앉히사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당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 옆에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야말로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the surrender of Himself to God)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로 인해 속죄함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고 효과 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자(partaker)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기 부정(true self-denial)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 니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내세우는 것(the claim of self)은 일순간 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날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

기쁨의언덕으로 EOSCATE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신명기 Deuteronomy

신명기는 '제2의율법' 또는 '율법의 재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으로,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의 나그 네 길 끝에 요단강의 동편, 사해 동쪽의 모압광야(평지)에 다다릅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모압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 머물 당시 당시 20세가 안되어 계수에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들을 광야 제2세대라고 부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지도자 모세가 모압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생을 정리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의 출애굽 역사를 다시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세 차례에 걸쳐 강조한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서사적으로 기록한 율법의 요점을 간추려 권고합니다.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확대하여 설명합니다. 즉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할 규례를 제시하며,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각의 세대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신명기의 신학과 특징

신명기의 핵심을 이루는 네 가지 신학으로는 첫째, 유일신 신앙의 강조로, 신명 기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중앙 성소의 강조로, 신명기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비록 가나안에서 살더라도 가나안의 문화, 종교, 생활 등 모든 것을 부정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넷째,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돕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신명기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준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과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선택을 했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며 이는 성경에 여실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고,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무서운 징벌이 따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신명기는 더불어 강조합니다.

쉐마사상

신명기 6장 4-25절의 모든 말씀은 '야훼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고백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며,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6~9절에서는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며, 일상생활에서 훈계로 만들어 자녀들을 교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는 공간은 가정입니다. 부모들은 교사로서 이스라엘의 생활규범을 스스로 통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돌판에 새기듯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즉 암기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쉐마는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번영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까하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가나안에서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신 약

속의 결과이며, 그들스스로가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야훼를 잊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쉐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배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체 구조

1. 모세의 제1설교

역사적 회고의 설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1-4장에 기록 하고 있습니다.

- 1)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회고: 1-3장
- 2)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백성에 대한 호소: 4:1-40
- 3) 역사적 기술의 계속: 4:41-49

2. 모세의 제2설교

하나님의 율법의 주석과 적용에 대해 5-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1) 십계명의 반복, 하나님께 의지할 것의 권고: 5-11장
- 2) 백성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윤리적 율법: 12-26장

3. 모세의 제3설교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27-3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1) 돌에 기록되어야 할 율법, 저주와 축복: 27:1-28:6
- 2)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 28:7-68
- 3) 약속과 경고로써 갱신되고 강고해진 언약: 29-30장

4. 모세의 생애 최후의 고별장면으로 31-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1) 책임이 주어지고 임명을 받는 여호수아: 31:1-23
- 2) 제사장에게 맡겨진 율법서: 31:24-29
- 3) 모세의 노래, 느보산에 오르라는 명령: 32장
- 4) 모세의 최종 축복: 33장
- 5)모세의죽음: 34장

기쁨의언덕으로 EOSan C

E요일·Sat

2022 October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God's Word Will Be Don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세 편의 고 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1차 설교(1:1-4:43), 현재를 조망하는 2차 설교(4:44-26:19), 미래를 향한 3차 설교(27:1-30:20) 중, 1차 설교의 시작인 본문은 40년 광야사를 사건 중심으로 회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 새200장(통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묵상·신명기 1:1-10

통독·신명기 1장

- 1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숩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 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 2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 길이었더라
- 3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을 다 알렸으니
- 4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 을 쳐죽이 후라
- 5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 하였더라 일렀으되
- 6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 7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 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 8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지니라
- 9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의 짐을 질 수 없도다
- 10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Reading Insight

Deuteronomy is a collection of Moses' three farewell sermons given while in the plains of Moab just before the Israelites entered Canaan. The first sermon reflects on the past (1:1–4:43); the second sermon interprets the present (4:44–26:19); and the third sermon looks towards the future (27:1–30:20). Today's scripture is the beginning of the first sermon, reflecting on events of the past 40 years of life in the wilderness. Moses reaffirmed God's promise that God's words will be don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for those who obey the Word of God.

☐ Hymn200 Sing Them Over Again to Me

Meditation • Deuteronomy 1:1-10

Reading Plan • Deuteronomy 1

- ¹ These are the words that Moses spoke to all Israel beyond the Jordan in the wilderness, in the Arabah opposite Suph, between Paran and Tophel, Laban, Hazeroth, and Dizahab.
- It is eleven days' journey from Horeb by the way of Mount Seir to Kadesh-barnea.
- 3 In the fortieth year, on the first day of the eleventh month, Moses spoke to the people of Israel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had given him in commandment to them,
- 4 after he had defeated Sihon the king of the Amorites, who lived in Heshbon, and Og the king of Bashan, who lived in Ashtaroth and in Edrei.
- ⁵ Beyond the Jordan, in the land of Moab, Moses undertook to explain this law, saying,
- 6 "The LORD our God said to us in Horeb, 'You have stayed long enough at this mountain.
- 7 Turn and take your journey, and go to the hill country of the Amorites and to all their neighbors in the Arabah, in the hill country and in the lowland and in the Negeb and by the seacoast, the land of the Canaanites, and Lebanon,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 8 See, I have set the land before you.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to give to them and to their offspring after them.'
- **9** "At that time I said to you, 'I am not able to bear you by myself.
- 10 The LORD your God has multiplied you, and behold, you are today as numerous as the stars of heav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 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18절) What did the promise of God achieve for us that transcends all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1:18)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와 생각을 앞세우고 행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42-44절) Have you experienced failure and despair because you placed your own desire and thoughts ahead of the will of God? (1:42-4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애쉬번 한인교회, 강현식(VA) 엠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V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Pray, Wish, and Wait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한 광야 여정의 역사와 시내산 율법을 비롯한 각종 규례에 익숙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몰락한 후,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될 신세대에게 과거의 역사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율법을 환기시킴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전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세는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불변의 성격을 지닌 언약으로써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때와 방법은 절대적으로 하나 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연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At Kadesh Barnea, Moses was hoping for successful fulfillment of the promise of the possession of Canaan. The first Exodus generation of Israelites was familiar with and used to the myriad of regulations and laws of Mt. Sinai and was also ultimately responsible for life in the wilderness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and rebellion. Upon the passing of the first generation, the new generation would be the protagonist of the campaign to enter Canaan. In order for the second Exodus generation of Israelites to avoid the same mistakes of the previous generation, Moses reminded them of the laws of God and the history of the dire failure resulting from their disobedience and resentment of God.

The promise of God is a covenant that never changes, transcends space and time, and is always fulfilled at the time and by the method God absolutely decides. The promise of God is fulfilled only according to God's best way at a time that is best according to God's judgment, not by my way nor at a time of my choice. During the process of God's promise being fulfilled, what we need to do is "to wait as we pray" while we trust whatever God says and obey. We "pray" as we trust God's promise, and once we pray, we must "anticipate" that God's promise will be fulfilled. To "those who wait" for God's time to fulfill our anticipation, God will certainly fulfill the promise of our bles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02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잘 믿기 위해서"

오치용목사 (시카고예수사랑교회, IL)

요즘에는 '교회가 뭘까?', '신앙이 뭘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오는 걸까요? 저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것도 알고 보면 꽤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마다 믿는 하나님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저마다 바라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 신앙의 다양한 이유와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꼭 좋은 교회라고 할수도 없고 사람들이 적다고 부족한 교회라고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단이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를 설명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가고 저마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목회자들이라면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유행을 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과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들이 만날 때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본질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너무도 자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30년 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매해 똑같은 교회 표어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 잘

민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이지만 오랜 목회의 경험에서 우리 나온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하느라 바쁜 데 예수 잘 믿는 일과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잘 믿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잘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 이신 그분께 집중하는 가운데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의 목표 역시 잘 믿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사와 이익이 우선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엉뚱한 의도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직접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일렁이는 의심과 회의들을 대면하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 하는 습관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믿게 된다면 누군가 우리 믿음의 이유를 물어와도 제대로 대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Ваез·Mon 03

2022 October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God Who Is Faithful to His Promis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애굽을 탈출한 후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가나안에서 4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롯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에돔과 모압,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을 인정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묵상·신명기 2:1-9, 17-19

통독·신명기 2장

- 1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광야에들어가서 여러 날동안세일산을 두루다녔더니
- 2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3너희가이산을두루다닌지오래니돌이켜북으로나아가라
- 4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 5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 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 었음이라
- 6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 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 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 8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 9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 17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8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 19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Reading Insight

As God commands the Israelites to take possession of Canaan, God's promise at Mt. Sinai to give them the blessed land would be fulfilled at Canaan 40 years after they fled Egypt. God especially remembered his promise to Esau and Lot and acknowledged the land being occupied by their descendants Edomites and Moabites. This demonstrates that God's promise would certainly be fulfilled, transcending time and space for all people.

7 Hymn546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 Deuteronomy 2:1–9, 17–19

Reading Plan • Deuteronomy 2

- 1 "Then we turned and journeyed into the wilderness in the direction of the Red Sea, as the LORD told me. And for many days we traveled around Mount Seir.
- ²Then the LORD said to me,
- ³ 'You have been traveling around this mountain country long enough. Turn northward
- 4 and command the people, "You are about to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your brothers, the people of Esau, who live in Seir; and they will be afraid of you. So be very careful.
- ⁵ Do not contend with them, for I will not give you any of their land, no, not so much as for the sole of the foot to tread on, because I have given Mount Seir to Esau as a possession.
- 6 You shall purchase food from them for money, that you may eat, and you shall also buy water of them for money, that you may drink.
- **7** For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He knows your going through this great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he LORD your God has been with you. You have lacked nothing."
- 8 So we went on, away from our brothers, the people of Esau, who live in Seir, away from the Arabah road from Elath and Ezion-geber. "And we turned and went in the direction of the wilderness of Moab.
- ⁹ And the LORD said to me, 'Do not harass Moab or contend with them in battle, for I will not give you any of their land for a possession, because I have given Ar to the people of Lot for a possession.'
- 17 the LORD said to me,
- 18 'Today you are to cross the border of Moab at Ar.
- 19 And when you approach the territory of the people of Ammon, do not harass them or contend with them, for I will not give you any of the land of the people of Ammon as a possession, because I have given it to the sons of Lot for a possess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Have you persevered with faith and waited a long time for your prayer to be answered?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이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0절)

If God is the God of Israel as well as of people of all nations, then why did Sihon the Amorite, King of Heshbon perish from the judgment of God? (v. 3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사귐의교회, 김영봉(VA) 와싱톤제일교회, 정성호(V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God Recompenses According to Deed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다시 가나안에 입성을 시도하기까지는 38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2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족속들을 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전멸당할 것이다. 저들과 싸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셨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8년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곧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였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으므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신분과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실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응하여 주실사람입니까. 저주와 심판으로 보응하실 사람입니까?

Since the incident at Kadesh Barnea, it took the Israelites 38 long years to reattempt taking possession of Canaan. This delay was entirely due to the deeds of Israelites who disobeyed God. If the Israelites trusted the will of God and obeyed His words completely, they could have conquered Canaan in 2 years. But upon discovering how well their castles were fortified and how tall and big the Canaanite people were, the Israelites resented God by complaining, "We cannot win. We will be totally destroyed by them. We would be better off dying here than being slaughtered by them while fighting miserably." God allowed them to say those things and recompensed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But 38 years later, the new generation of Israel trusted God, was willing to do anything with God, and their faith paid off.

Sihon the Amorite, King of Heshbon fought against Israel who was marching to Canaan as ordered by God. King Sihon fought against God to block the will of God, and the king was destroyed by Israel. To fight against the people of God is to fight against God which invites their own destruction. God recompends according to deed. Whether Israelites or gentiles, status or position is immaterial. God looks at only the deeds of people and recompenses and rewards people according to deeds. Am I to be recompensed with blessing because of my firm belief in the promise of God or to be recompensed with curses and judgmen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화요일·Tue

2022 October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Faith without See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전에 요단강 동편의 요충지를 정복하여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 장차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과 정복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신 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보 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 새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묵상·신명기 3:12-22

통독·신명기 3장

- 12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 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에게 주었고
- 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 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 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 을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 15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 16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 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복 강까지며
- 17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 18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 19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 20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 21 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 22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Reading Insight

Prior to entering Canaan, God had given the Israelites affirmation of victory over the land of Canaan through the conquering and occupying of key territories east of the Jordan river by the tribes of Reuben, Gad, and Manasseh. Of the Israelites who witnessed the power that God is with them, God demanded an absolute faith in God who was fighting for Israel even though He may not be seen.

🎵 Hymn347 We Are Bound for Canaan Land

Meditation • Deuteronomy 3:12-22

Reading Plan • Deuteronomy 3

- 12 "When we took possession of this land at that time, I gave to the Reubenites and the Gadites the territory beginning at Aroer, which is on the edge of the Valley of the Arnon, and half the hill country of Gilead with its cities.
- 13 The rest of Gilead, and all Bashan, the kingdom of Og, that is, all the region of Argob, I gave to the half-tribe of Manasseh. (All that portion of Bashan is called the land of Rephaim.
- 14 Jair the Manassite took all the region of Argob, that is, Bashan, as far as the border of the Geshurites and the Maacathites, and called the villages after his own name, Havvoth-jair, as it is to this day.)
- 15 To Machir I gave Gilead,
- 16 and to the Reubenites and the Gadites I gave the territory from Gilead as far as the Valley of the Arnon, with the middle of the valley as a border, as far over as the river Jabbok, the border of the Ammonites;
- 17 the Arabah also, with the Jordan as the border, from Chinnereth as far as the Sea of the Arabah, the Salt Sea, under the slopes of Pisgah on the east.
- 18 "And I commanded you at that time, saying,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this land to possess. All your men of valor shall cross over armed before your brothers, the people of Israel.
- 19 Only your wives, your little ones, and your livestock (I know that you have much livestock) shall remain in the cities that I have given you,
- 20 until the LORD gives rest to your brothers, as to you, and they also occupy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gives them beyond the Jordan. Then each of you may return to his possession which I have given you.'
- 21 And I commanded Joshua at that time, 'Your eyes have seen all that the LORD your God has done to these two kings. So will the LORD do to all the kingdoms into which you are crossing.
- 22 You shall not fear them, for it is the LORD your God who fights for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 정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었 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1-22절)

How could Israel fight without fear during the conquering process of Canaan? (vv. 21–22)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can Christians in this world of uncertainty of zero visibility always live with thanksgiving and joy?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와싱톤한인교회, 김영훈(VA)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 구정훈(VT)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내가 가진 최고의 '빽' My Connections, the Best

오래전에 어느 쇼핑몰 주차장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별로 크지 않은 체격의 젊은 흑인이었는데, 서로 자동차 창문을 열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 차의 짙은 유리로 인해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뒷좌석의 양쪽 문이 열리더니 엄청난 체격을 가진 우락부락한 인상의 흑인 두 사람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잘못 걸렸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목사가 선교지가 아닌 쇼핑몰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중에 죽으면 순교라고 우길 수도 없고, 이 무슨 창피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뒤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지만 무섭지 않은 척, 쫄았지만 쫄지 않은 척하며 세 사람의 흑인과 설전을 벌였지만, 제 등 뒤로는 두려움으로 인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로 좋게 사과하며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그 차가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 좌석의 운전자를 볼 때는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다리의 힘이 풀릴 정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 습니다. 사람은 내 뒤에 누가 서 있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 진 빽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걱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빽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없고 연약하지만 내 뒤 에 계신 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 long time ago. I had a disagreement with another driver in a shopping mall parking lot. The other man was a black driver who did not appear to have a large physique, and we were arguing through rolled down front seat windows. The other car's windows were heavily tinted so I could not see inside very well. Then suddenly the two rear doors opened and two large bulky black men emerged. Then a fear went through my brain, "I made a wrong move. I may die today." If a clergy is killed during an argument in a parking lot, not in the mission field, it cannot be faked as martyrdom, what a scandal that would be - those were my thoughts that followed. But as a proud Korean, I could not back down. So I engaged with the three black men. I was worried but pretended not to be, I was scared but pretended not to be, and I could feel a cold sweat of fear on my back. Fortunately, the incident wrapped up with amicable and mutual apologies, but I sighed with relief only when the other man's car disappeared completely out of my sight.

When I looked at the driver, I had no reason to fear but the minute I saw two additional men in the back seats, I cannot deny that my legs were losing strength out of fear. Who is standing behind us is so important to the average person. It is not that I worry because God is the only connection I have. We do not need any other connection if we have the connection with God. I am weak and powerless but the one behind me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our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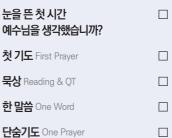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수요일·Wed 05

2022 October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Whatever God Say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모세는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근본이자 인생의 법칙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임을 밝힌 후,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묵상·신명기 4:1-13

통독·신명기 4장

-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 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 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3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 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 까지 다생존하였느니라
-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어디 있느냐
-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 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 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 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 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 12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 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칭히 쓰신 것이라

At the end of the first of Moses' sermons, he admonished complete obedience to the laws of God. Moses began his second series of sermons in Chapter 4 expounding that the Word of God alone is the basis of our life journey and the law of life and is the absolute standard to be kept by all Christians.

Hymn524 Come to the Savior, Make No Delay

Meditation • Deuteronomy 4:1–13

Reading Plan • Deuteronomy 4

- 1 "And now, O Israel, listen to the statutes and the rules that I am teaching you, and do them, that you may live, and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is giving you.
- ² You shall not add to the word that I command you, nor take from it, that you may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command you.
- ³ Your eyes have seen what the LORD did at Baal-peor, for the LORD your God destroyed from among you all the men who followed the Baal of Peor.
- ⁴ But you who held fast to the LORD your God are all alive today.
- ⁵ See, I have taught you statutes and rules, as the LORD my God commanded me, that you should do them in the land that you are entering to take possession of it.
- 6 Keep them and do them, for that will be your wisdom and your understanding in the sight of the peoples, who, when they hear all these statutes, will say, 'Surely this great nation is a wise and understanding people.'
- 7 For what great nation is there that has a god so near to it as the LORD our God is to us, whenever we call upon him?
- 8 And what great nation is there, that has statutes and rules so righteous as all this law that I set before you today?
- 9 "Only take care, and keep your soul diligently, lest you forget the things that your eyes have seen, and lest they depart from your heart all the days of your life. Make them known to your children and your children's children--
- 10 how on the day that you stood before the LORD your God at Horeb, the LORD said to me, 'Gather the people to me, that I may let them hear my words, so that they may learn to fear me all the days that they live on the earth, and that they may teach their children so.'
- 11 And you came near and stoo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while the mountain burned with fire to the heart of heaven, wrapped in darkness, cloud, and gloom.
- 12 Then the LORD spoke to you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You heard the sound of words, but saw no form; there was only a voice.
- 13 And he declared to you his covenant, which he commanded you to perform, that is, the Ten Commandments, and he wrote them on two tablets of ston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Within the Word of God, what can we obey and what can we not obey?

하나님께서 제시한 순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 What is the basis of obedience presented by God? (v. 2)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애틀연합감리교회, 박세용(WA) 좋은씨앗교회, 정요셉(W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순종의 한계 The Limits of Obedience

군대에서 복무 중에 견디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참 비효율적인 집단이라는 하나의 예가 겨울에 눈이 오면 드러납니다. 눈이 쌓인 후에 눈을치우는 것이 지극한 상식인데, 군대는 눈이 내릴 때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눈을 쓸고 지나가면 방금 치운 자리에 눈이 바로 쌓이지만, 쓸고 쌓이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군대에서의 제설 작업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정말로 융통성 없는 조직입니다. 오직 '상명하복'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원칙이 살아있고, 명령체계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명령체계에는 조건과 한계가 없습니다. 주어진 명령은 무조건 수행해야 군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대로 순종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종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벗어나면 안 되며, 당연히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식과 합리성과 내가 정해 놓은 삶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는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이라는 절대적 조건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지시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 내 판단과 주장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During military service active duty,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at an order must be unconditionally obeyed no matter how unreasonable or senseless it may be. One example of the ineffectiveness of the military is when it snows in winter. It is common sense to start shoveling snow when enough snow has accumulated but the military rule is to start shoveling as soon as snow starts. When snow is swept away by snow removal, new snow will start piling up immediately, and this process of removal and accumulation would be repeated almost endlessly. This is snow removal military style. It is an organization worthy of being labeled as unreasonable, ineffective, and totally inflexible. Only "topdown decision making" exists. On the other hand, the so-called military organization exists to wage war according to the command system. But the command system has its conditions and limits. Once a command is given, that command must be followed no matter what in order for the military to fun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is the same; God commands and human beings obey. But to us human beings, there is a limit to our obedience. Even God cannot overrule my common sense, my reasonable thinking, and naturally my own common sense. My own reasonable thinking and my own standard are more important than the will of God. But the blessing covenant of God calls for a precondition of obedience. The meaning of obedience to God accompanies the absolute condition, "whatever God says." Whatever God speaks, whatever God orders or commands, we should lay down our own judgment, argument, or will, and obey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Only then will God's covenant to us be fulfil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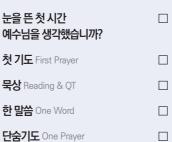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October

너희는 들으라

Hear, You Al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과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얻게 될 축복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쉐마',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 새199장(통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묵상·신명기 6:1-9

통독·신명기 5-6장

- 1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 2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 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 한 것이라
- 3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 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6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7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9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Moses expounded upon the purpose of laws given to the Israelites and the blessings of following the laws. Israelites would become the people of God and the only way to fulfill the covenant of blessing promised by God was "Shema," that is, to hear the Word of God.

♬ Hymn199 There Is a Dear and Precious Book

Meditation • Deuteronomy 6:1-9

Reading Plan • Deuteronomy 5-6

- 1 "Now this is the commandment, the statutes and the rules that the LORD your God commanded me to teach you, that you may do them in the land to which you are going over, to possess it,
- 2 that you may fear the LORD your God, you and your son and your son's son, by keeping all his statutes and his commandments, which I command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nd that your days may be long.
- ³ Hear therefore, O Israel, and be careful to do them,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multiply greatly, as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has promised you, in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 4"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 5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 6 And these words that I command you today shall be on your heart.
- **7**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and shall talk of them when you sit in your house, and when you walk by the way, an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rise.
- 8 You shall bind them as a sign on your hand, and they shall be as frontlets between your eyes.
- ⁹ You shall write them on the doorposts of your house and on your gat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What should we do to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in our mind?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 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 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4-9절)

What was the prerequisite to be blessed with the promise of God when the Israelites entered Canaan? (vv. 4–9)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WA) 맑은 물 펠로쉽 한인교회, 김재선(W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We Must Act Exactly as We Hear

'아멘'은 믿음과 충성에서 유래된 말로써,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멘'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순종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한곳의 법과 규칙을 지키고 지시 사항과 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철저히 받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말만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것이었으며, 내가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여자는 결혼 전에는 어머니, 결혼 후에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한 명의 여인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구글 맵 혹은 내비게이션을 안내해 주는 아가씨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분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존재 그 자체로써,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내가 말씀을통해 깨닫고 기도한 것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기도하며, 기도한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며 방식이어야 합니다.

The word "Amen" originated from faith and faithfulness. It means, "I believe so," "Yes, it is," and "Yes, I will do so." I believe that the word "Amen" uttered by me is the word and the will of God and it becomes my desire of promise and obedience in front of God to do as I say. In the society where I live, it is important to keep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o follow instructions and commands. From my childhood, there is one cardinal teaching of my father. "When a man listens faithfully to a woman, the man will be rewarded with a rice cake even when the man is asleep." The woman to whom I must listen faithfully was my mother before I got married, and my wife after I got married. And now according to social phenomena one more woman is added to my list. It is the woman who guides navigation on Google Maps or other navigation apps.

QT and prayers are the most important way to communicate with God. God is the spiritual being who exists as Wor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Jesus Christ was the flesh, and the Word given in language form is the Bible. Therefore, the Bible is the very Word of God, and through the Word of the Bible we should discern the goodness and the meaning of completeness of God. We communicate with God as we pray while clinging to what we understan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an important thing must follow. That is, we must act according to the conscience of our faith; what we prayed and understood through the Word. We must obey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Bible, pray as we understand through the Word, and act according to what we prayed. That must be the process of obeying God and the w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and the second s

2022 October

여호와를 잊지 말라

Do Not Forget Our Lo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지속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 께만 두는 이스라엘의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신명기 8:11-20

통독·신명기 7-8장

-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 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 끌어 내시고
-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 같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 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 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 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 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Israel became the chosen people of God totally by God's selective grace and would occupy the land of beauty upon destroying all nations of Canaan. In order to enjoy and sustain the grace of God, it is up to Israel not to forget God and give all credit and glory to God.

☐ Hymn310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Meditation • Deuteronomy 8:11-20

Reading Plan • Deuteronomy 7-8

- 11 "Take care lest you forget the LORD your God by not keeping his commandments and his rules and his statutes, which I command you today,
- 12 lest, when you have eaten and are full and have built good houses and live in them.
- 13 and when your herds and flocks multiply and your silver and gold is multiplied and all that you have is multiplied,
- 14 then your heart be lifted up, and you forget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 15 who led you through the great and terrifying wilderness, with its fiery serpents and scorpions and thirsty ground where there was no water, who brought you water out of the flinty rock,
- 16 who fed you in the wilderness with manna that your fathers did not know, that he might humble you and test you, to do you good in the end.
- 17 Beware lest you say in your heart, 'My power and the might of my hand have gotten me this wealth.'
- 18 You shall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power to get wealth, that he may confirm his covenant that he swore to your fathers, as it is this day.
- 19 And if you forget the LORD your God and go after other gods and serve them and worship them, I solemnly warn you today that you shall surely perish.
- 20 Like the nations that the LORD makes to perish before you, so shall you perish, because you would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는 마음과 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마음 중 어느 것이 내 자신의 본질입니까?

Which is the true picture of myself: an attitude that I deserve to be blessed with the grace of God or an attitude that all of what I am now is a free gift of Go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을 믿는 내게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다면, 그 고난과 시련의 근 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If suffering and trial come to me, what is the root reason?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훈(WI)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W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영적 착각 Spiritual Mistake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계명을 실천하지는 못하면서 입으로만 "주여"를 외치는 수많은 교인들, 그저 기도 크게 하고 오래 하면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며,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여기며, 직분이 믿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아 어떻게든 높은 직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범주에 내가 속해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들은 어떻게 해도 결국 구원받고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 의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잘 믿는 것이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나 정도면 세상 잘 살아온 것이고, 나 정도면 착한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빠져 사는 영적 착각들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 착각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를 이끌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며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Do I belong to this category of people: believers who only provide lip service yelling "Lord" while not practicing commands to be worthy of being called Christians; those who think they have faith if they pray loud and longer; those who misunderstand showing tears while singing hymns as being full of holy spirit; people whose measuring vardstick of faith is offering generously and engaging in many services at church; and those who consider church positions as reflecting faith as they endeavor to acquire as high position as possible? We need to think about how Jerusalem and the Israelites, who never doubted believing that they would be blessed and saved anyway no matter what they did, were destroyed by the Roman empire in A.D. 70. In fact we all live in the midst of a myriad of spiritual misunderstandings. This is how we evaluate ourselves: I am a good believer, my faith journey is okay, my lifestyle in this world is fair, I am a decent and good Christian, and therefore I naturally deserve to go to the kingdom of heaven. What a mistake. These are common spiritual misunderstandings applicable to all believers of God. Though we are free to misunderstand, we must clearly understand that misunderstanding that we have not even thought of could lead us to God's judgment. God does not look at outward appearance but looks at the heart. Is the image of God within me? Is the image of Jesus Christ reflected through all the things that I do? God looks at my heart and my mind and God judges me according to my mind and my deeds. Christians must live without relaxing spiritual t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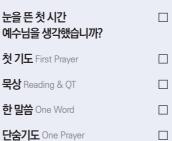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일·Sat

2022 October

이스라엘의 불순종

Disobedience of Isra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본문은 가나안 정복과 입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광야 40년의 치욕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며 교만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 새290장(통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묵상·신명기 9:1-6, 22-24

통독·신명기 9장

- 1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 2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 3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 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합 것이라
- 4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 5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 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 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 6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 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 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 22 너희가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 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 23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 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 24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Today's scripture emphasizes that the conquest and possession of Canaan resulted only by the Grace of God and prevents the arrogance of Israel in advance. Moses recounts the humiliating events of the past 40 years in the wilderness and reminds them of devastating results stemming from their arrogance.

☐ Hymn290 Have a Savior He's Pleading in Glory

Meditation • Deuteronomy 9:1-6, 22-24

Reading Plan • Deuteronomy 9

- 1 "Hear, O Israel: you are to cross over the Jordan today, to go in to dispossess nations greater and mightier than yourselves, cities great and fortified up to heaven,
- ² a people great and tall, the sons of the Anakim, whom you know, and of whom you have heard it said, 'Who can stand before the sons of Anak?'
- 3 Know therefore today that he who goes over before you as a consuming fire is the LORD your God. He will destroy them and subdue them before you. So you shall drive them out and make them perish quickly, as the LORD has promised you.
- 4 "Do not say in your heart, after the LORD your God has thrust them out before you, 'It is because of my righteousness that the LORD has brought me in to possess this land,' whereas it is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se nations that the LORD is driving them out before you.
- ⁵ Not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or the uprightness of your heart are you going in to possess their land, but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se nations the LORD your God is driving them out from before you, and that he may confirm the word that the LORD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 **6** "Know, therefore, that the LORD your God is not giving you this good land to possess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for you are a stubborn people.
- **22** "At Taberah also, and at Massah and at Kibroth-hattaavah you provoked the LORD to wrath.
- 23 And when the LORD sent you from Kadesh-barnea, saying, 'Go up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at I have given you,' then you rebelled agains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your God and did not believe him or obey his voice.
- 24 You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the LORD from the day that I knew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4-5절) What kind of sin did God worry that the Israelites, who were about to enter Canaan, might commit? (vv. 4-5)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는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What kind of grace has God bestowed so far on me who has no merit?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참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 김성근(WI)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W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아무 공로 없이 누리는 은혜

Grace Enjoyed without Merit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경계하셨습니다(1-5절).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임 을 분명히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자만을 억제하셨고, 아무 공로 없는 이 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6-24절). 이처럼 이스라엘이 선민의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통감한 영혼은 절대 자만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과 축복을 누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때였으며, 그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축복은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곧 교만입니다. 교만이불순종을 이끕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이 세상에서 버려질 뿐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Just before the Israelites were ready to enter Canaan, God warned them of their arrogance (vv. 4–5). As God made clear that the proponent of the possession of Canaan was God Himself, God had subdued the pride of the Israelites and God had shown His faithfulness through the grace bestowed on Israel who did nothing to deserve it.

The often repeated sins of Israel were clear evidence that they were not at all worthy of receiving Canaan as an inheritance (vv. 6–24). Hence the fact that God gave Canaan as an honorable inheritance to Israel in spite of their lack of merit to be called the chosen people was clear indication that it was entirely a gift of God. Israel existed until that day because God's love and grace kept and protected them. Any soul who deeply felt the love and grace of such a God cannot be proud at all. When Israel was prosperous and blessed, they were always humble and grateful to God, but the tribulations and trials they experienced were the result of their arrogance before God. Blessings are divine grace given to me without merit. The very thought that I deserve that grace is pride. Pride engenders disobedience and disobedience means sever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must not forget that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God was severed are to be abandoned in this worl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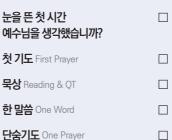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09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 나 님 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컵과 나, 그리고 은혜의 힘

김영봉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 VA)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9, 10)

야고보서는 헛된 인생은 자칫 뜨거운 바람 한 방에 시들어 버리는 들풀이나 하루살 이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의 인생은 여러 가지 뜨거운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줄 아다고 했습니다(약 1:2).

그러므로 가난하거나 낮아질 때에는 자존감을 높이고, 높아졌을 때는 겸손하여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낼 것을 요청합니다.

교인 분이 얼마 전 셀폰 액정화면을 새로 바꿨는데 그만 물에 빠뜨려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주간에 저의 큰 아들의 셀폰은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옛날 폰을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음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찬장에서 컵을 꺼내다가 그 셀폰들 생각이 나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찬장에는 내가 매우 아끼는컵이 있습니다.

컵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똑같은 컵을 구할 수가 없어서 깨질까 봐 안 쓰는 컵입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다른 컵을 집어 들다가 셀폰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렇 게 사용도 안 할 거면 저 컵이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아끼다가 혹여 깨져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병이라도 들어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아끼는 그 컵들을 매일 사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신 후 가진 개인기도 시간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겠나? 그걸 오늘 최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적극 사용하자. 그렇게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용하자.' 김석균 씨의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 게 고통 주는 자 품어 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살수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시간, 재능이라는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리며 삽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사용할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2022 October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What God Asks from 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하나님께서는 파기되었던 십계명 두 돌판을 새로 제작하여 주셔서,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역사에 동 참하게 하셨습니다. 선민의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만 경외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 를 지킬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 새263장(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묵상·신명기 10:12-22

통독·신명기 10-11장

-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섞기고
-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 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 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 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 18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 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 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 21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 22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 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God rebuilt two stone tablets that were once destroyed. Similarly, He renewed Israel who was once full of sins and allowed Israel to rejoin His holy history. Having restored the covenant of the chosen people, Israel was asked to fear only God, serve God with all their minds and hearts, and obey the commands and regulations of God.

Hymn263 I Hear the Savior Say

Meditation • Deuteronomy 10:12-22

Reading Plan • Deuteronomy 10-11

- 12 "And now, Israel, what does the LORD your God require of you, but to fear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all his ways, to love him, to ser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 13 and to keep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of the LORD, which I am commanding you today for your good?
- 14 Behold, to the LORD your God belong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s, the earth with all that is in it.
- 15 Yet the LORD set his heart in love on your fathers and chose their offspring after them, you above all peoples, as you are this day.
- 16 Circumcise therefore the foreskin of your heart, and be no longer stubborn.
- 17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the great, the mighty, and the awesome God, who is not partial and takes no bribe.
- **18** He executes justice fo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and loves the sojourner, giving him food and clothing.
- 19 Love the sojourner, therefore, for you were sojourners in the land of Egypt.
- 20 You shall fear the LORD your God. You shall serve him and hold fast to him, and by his name you shall swear.
- ²¹ He is your praise. He is your God, who has done for you these great and terrifying things that your eyes have seen.
- 22 Your fathers went down to Egypt seventy persons, and now the LORD your God has made you as numerous as the stars of heav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12-13절)

What does God ask us to do for our happiness and blessing? (vv. 12–13)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11:26-28)

What is the principle behind God's blessing and curse to us? (11:26–28)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축복의 조건 Condition of Blessing

인간의 약속은 말뿐인 약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 약속에는 "언제 밥 한번 먹자", "연락드릴게요"가 있고,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 약속은 아마도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약속은 잘 지켜질까요? 한평생 사랑하고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결혼하면 절대 한 눈 팔지 않겠다는 약속, 과연 잘 지켜져 왔습니까?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약속, 누구 와의 약속에도 충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양면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도 철저히 지키시지만 심판의 약속에도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그 축복에는 철저히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고 버림받을 것이라 하신 약속에도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예언과 계시가 가득하지만, 동시에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예언과 계시도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성경 말씀이 축복의 예언이 될지 아니면 심판의 계시가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말고 실천해야만 하는 행동양식으로 행하여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The promise of a person, in many cases, ends up as just empty words. Among many false promises between people, "Let's have dinner together soon" and "I will be in touch with you." Among believers the most common false promise may be, "I will pray for you." Can the promise of love between two lovers be kept? The promise to love a partner throughout life, the promise to not cause tears in the eyes of the love partner, and the promise not to look away once married – have those promises been kept?

Unlike human beings, God is very faithful with promises and covenants. God is faithful with promises with whoever and whatever. The traits of God who is so faithful with promises show two sides. God not only thoroughly honors the promise of blessing but God is also faithful with the promise of judgment. God fully blesses those whom He loves but the blessing calls for thorough conditions which include obeying the command and the Word of God. If those conditions are not met, the promise of judgment and abandonment by God is also thoroughly practiced by God. The Bible is full of stories about God's words of blessings. but at the same time, the prophecies and revelations of judgment, punishment, and curse are also clearly emphasized. Whether the words of the Bible would become the prophecy of blessings or the revelation of judgment totally depends on my attitude toward the Word of God. Rather than try to understand the words of the Bible as a source of knowledge, we should try to treat it as a rule of behavior to practice. All the words of blessing in the Bible are the Word of God given to m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화요일·Tue

2022 October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Cannot Serve Two Mast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가나안 정복 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각종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는 가증한 모든 죄악의 척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 새67장(통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묵상·신명기 12:1-3, 29-32

통독·신명기 12장

- 1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 2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 3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 29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 30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 31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 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 32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Upon taking possession of Canaan, Israel's priority as commanded by God was to destroy all idols that defiled God's land. Indeed, a righteous nation ruled by God begins with cleansing of all despicable sins.

7 Hymn67 O Worship the King All Glorious Above

Meditation • Deuteronomy 12:1-3, 29-32

Reading Plan • Deuteronomy 12

- 1 "These are the statutes and rules that you shall be careful to do in the land t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has given you to possess, all the days that you live on the earth.
- ² You shall surely destroy all the places where the nations whom you shall dispossess served their gods, on the high mountains and on the hills and under every green tree.
- ³ You shall tear down their altars and dash in pieces their pillars and burn their Asherim with fire. You shall chop down the carved images of their gods and destroy their name out of that place.
- ²⁹ "When the LORD your God cuts off before you the nations whom you go in to dispossess, and you dispossess them and dwell in their land,
- **30** take care that you be not ensnared to follow them, after they have been destroyed before you, and that you do not inquire about their gods, saying, 'How did these nations serve their gods?--that I also may do the same.'
- 31 You shall not worship the LORD your God in that way, for every abominable thing that the LORD hates they have done for their gods, for they even burn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in the fire to their gods.
- 32 "Everything that I command you, you shall be careful to do. You shall not add to it or take from 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최 우선적으로 우상을 척결하라고 하 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31절) Why did God order Israel to cleanse idols as their priority? (vv. 29-31)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 만의 우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 엇인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Do I have an idol that I consider more important than God? If so, let's honestly identify it.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욱(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We Cannot Serve God a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대상을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자식들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아픔의 강도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편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과 재물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가장 높여 주실 것입니다.

Can I love my wife and another woman exactly the same? Can I love my husband and another man at the same time? To love and treat certain objects exactly the same as another is impossible. There is a saying that we share with our children. If you bite all ten fingers, all fingers will hurt, but the intensity of pain will be different. It cannot be the same. There is definitely one child whom you favor more than others regardless of the reasons. In all things, there exists something that I favor the most, someone I love the most, and something I value as the most precious.

God is the same. God does not love all people equally. "Favoritism" definitely exists in God's love. God would choose, distinguish, and exalt the one who would only look up to and praise God. Jesus said in Matthew 6:24,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Christians do not serve God and the world simultaneously. That does not mean that the world and things of the world are necessarily bad but God must be the most important. Our life in this world must be to exalt God's name and the glory be to God. We must recognize that we are only stewards of God for all the material possessions and those materials must be used with holiness for the glory of God. God loves those most dearly who love God most dearly and exalts those most highly who exalt God most highl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AB일·Wed 12

2022 October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Warning Against the Worship of Idol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예상되는 가증한 이 방 종교와 우상의 각종 유혹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악은 강한 전염성과 철저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기에 죄악은 모양이라도 흉내 내어서는 안 되며, 죄악된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과 사랑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묵상·신명기 13:1-11

통독·신명기 13-14장

-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 2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 4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 5 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 6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 7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 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 8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 9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 10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 11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God commands the Israelites to thoroughly resist the temptation of various idols and despicable gentile gods that were prevalent when Israel took possession of Canaan. God emphasized that sins are always accompanied by strong contagiousness and thorough explosive power. Therefore, sins must not even be mimicked, and neither tolerance nor love should be allowed toward the sinful forces.

☐ Hymn312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Meditation • Deuteronomy 13:1-11

Reading Plan • Deuteronomy 13-14

- 1 "If a prophet or a dreamer of dreams arises among you and gives you a sign or a wonder,
- ² and the sign or wonder that he tells you comes to pass, and if he says, 'Let us go after other gods,' which you have not known, 'and let us serve them.'
- ³ you shall not listen to the words of that prophet or that dreamer of dreams. For the LORD your God is testing you, to know whether you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 4 You shall walk after the LORD your God and fear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obey his voice, and you shall serve him and hold fast to him.
- ⁵ But that prophet or that dreamer of dreams shall be put to death, because he has taught rebellion against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redeemed you out of the house of slavery, to make you leave the way in which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to walk.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 6 "If your brother, the son of your mother, or your son or your daughter or the wife you embrace or your friend who is as your own soul entices you secretly, saying, 'Let us go and serve other gods,'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ve known,
- 7 some of the gods of the peoples who are around you, whether near you or far off from you, from the one end of the earth to the other.
- ⁸ you shall not yield to him or listen to him, nor shall your eye pity him, nor shall you spare him, nor shall you conceal him.
- ⁹ But you shall kill him. Your hand shall be first against him to put him to death, and afterward the hand of all the people.
- 10 You shall stone him to death with stones, because he sought to draw you away fro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 11 And all Israel shall hear and fear and never again do any such wickedness as this among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What are those things that we must follow and long for more than mysterious phenomena or miracles? (vv. 1-4)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이익과 즐거움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given up worldly gains and pleasures in order to practice the Word of God with honesty?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김찬홍(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름 값 합시다 Act Your Name

2010년 4월 6일 매사추세츠주 노스 햄프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소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에 치여 쓰러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묻자, 그 남성은 고통을 참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Lord Jesus Christ)"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 후 이름을 다시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짜증을 참아가며 다시 질문을 했지만 대답은 여전히 같았고, 화가 난 경찰이 결국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운전면 허증을 받아 본 경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Lord Jesus Christ)"였습니다. 감히 그리스도를 차로 친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화를 벌컥 내며 자신은 용서를 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행인들은 '그리스도'의 '비그리스도'적 행태에 한마디씩 했습니다. "무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래", "정말 이름값 못하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이름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 아야 합니다.

On April 6, 2010, an incident occurred in the town of North Hampton, MA, where Jesus Christ purportedly appeared. A police car responding to a 911 report arrived at the scene of a traffic accident with an injured man. The policeman asked for his name to confirm his ID and the man through his pain answered, "Lord Jesus Christ." The policeman thought his response was because the injured man had been saved from greater injury and was praying and giving thanks to God. A little later, the officer again asked for the man's name, but the answer was the same, "Lord Jesus Christ." Irritated, the policeman repeated the same question but the answer was again the same. The angry policeman asked for ID. Looking at the driver's license, the policeman was surprised because the real name on the driver's license was "Lord Jesus Christ." The other driver who hit the injured man admitted his fault and asked for mercy and forgiveness, but "Lord Jesus Christ" showed anger, said he could not forgive the other driver, and strongly demanded police punish the other driver in accordance with law. Bystanders made various comments about the "Anti-Christ like behavior" of the man named "Jesus Christ." "What kind of Jesus Christ is this?" "The man really does not act like his name." The name "Israelites"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ir salvation. Israelites should have lived as the chosen people worthy of the name. The name "Christian" does not guarantee salvation for us. We must live like Christians, acting in ways that reflect our name of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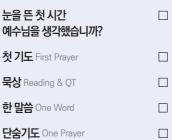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끼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489·Thu **13**

2022 October

면제와 해방의 규례

Canceling Debts and Freeing Servant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을 그들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이웃 사랑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묵상·신명기 15:1-11

통독·신명기 15장

- 1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 2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 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 3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 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 4-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 6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 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 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 니하리라
- 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 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 8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 9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 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 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After experiencing God's forgiveness of sins and deliverance in their experience of Exodus and entering the Promised Land, the people of Israel are called to share with others the love and mercy that they have received from God. As people who have received much love from God, they are to treat their neighbor with much love as well

7 Hymn218 You Shall Love God, Your Lord

Meditation • Deuteronomy 15:1-11

Reading Plan • Deuteronomy 15

- 1 "At the end of every seven years you shall grant a release.
- ² And this is the manner of the release: every creditor shall release what he has lent to his neighbor. He shall not exact it of his neighbor, his brother, because the LORD's release has been proclaimed.
- ³ Of a foreigner you may exact it, but whatever of yours is with your brother your hand shall release.
- ⁴ But there will be no poor among you; for the LORD will bless you in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for an inheritance to possess--
- ⁵ if only you will strictly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being careful to do all this commandment that I command you today.
- ⁶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as he promised you, and you shall lend to many nations, but you shall not borrow, and you shall rule over many nations, but they shall not rule over you.
- 7 "If among you, one of your brothers should become poor, in any of your towns within your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you shall not harden your heart or shut your hand against your poor brother,
- 8 but you shall open your hand to him and lend him sufficient for his need, whatever it may be.
- Take care lest there be an unworthy thought in your heart and you say, 'The seventh year, the year of release is near,' and your eye look grudgingly on your poor brother, and you give him nothing, and he cry to the LORD against you, and you be guilty of sin.
- 10 You shall give to him freely, and your heart shall not be grudging when you give to him, because for this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work and in all that you undertake.
- 11 For there will never cease to be poor in the land. Therefore I command you, 'You shall open wide your hand to your brother, to the needy and to the poor, in your la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무엇인가를 꾸어 주면서 그것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어 준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랬 다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Have you ever lent something to someone knowing that the person will not be able to pay it back or return it back to you? If so, did you do it with the heart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진정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은 어 떠해야 할까요? (16절)

What should be the attitude and character of a Christian who experienced God's saving grace? (v. 16)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The Mind of Christ Jesus

오늘 본문은 안식년, 곧 면제년 규례로써 매 칠 년마다 가난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여 절대적 빈곤을 방지하는 것과 히브리 동족 중 종된 자들의 자유와 해방 및 인권 보장에 관한 법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 세워진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고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안식년, 곧 면제년 규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닙니다. 빚을 진 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까지 넉넉히 주어서(10절), 빚을 졌 던 자도 이제는 더 이상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종 되었던 자를 해방시켜 줄 때에 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13-14절), 그 종이 더 이상 종으 로 살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다른 종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식년, 곧 면제년 규례의 정신이었습 니다. 진정한 긍휼의 마음은 나보다 못한 이웃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아니 나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서 비롯됩니다(발 2:1-5).

In our text today, we learn about commandments that call people to cancel the debts of their poor neighbors at the end of every seven years. This is commanded in order to prevent absolute poverty among the people and to protect the freedom and human rights of fellow Israelites who have become servants by setting them free in the seventh year. By doing so, the people of Israel were taught to demonstrate the unconditional love of God that they them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The year of sabbath when debts are canceled is about much more than just forgiving people's debt. Beyond just canceling the debts of those who are indebted, this practice includes giving generously to them (v. 10) so that those who are indebted can become self-supporting and even be able to lend to others who may be in need. Similarly, the reason why people were taught not to send away the servants empty-handed (Duet 14:13–14) was so that those freed servants can improve their life in the community to the point that they too can afford servants in their lives. This was the true spirit behind the commandment of the year of cancellation. We must remember that a true heart of mercy is rooted in the heart of Christ Jesus that desires for our neighbors to be well or even better off than ourselves.

Journaling with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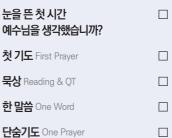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4

2022 October

공의로운 재판

Righteous Judgme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각종 율법과 규례는 정직하게 준수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게 판단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의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은 재판의 주관자이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판결해야 합니다.

♬ 새569장(통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묵상·신명기 16:18-20, 17:2-13

통독·신명기 16-17장

- 18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 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 이니라
- 19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 20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 3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 4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 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 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 6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 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 7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지니라
- 8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 9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함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 10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 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 12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 13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Reading Insight of

The Lord expected the people of Israel to judge people fairly and with justice according to the laws and decrees commanded by the Lord.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judging were expected to follow the righteous will of the Lord as they carried out the work of delivering judgments.

☐ Hymn569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Meditation • Deuteronomy 16:18-20, 17:2-13

Reading Plan • Deuteronomy 16-17

- 18 "You shall appoint judges and officers in all your towns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ccording to your tribes, and they shall judge the people with righteous judgment.
- 19 You shall not pervert justice. You shall not show partiality, and you shall not accept a bribe, for a bribe blinds the eyes of the wise and subverts the cause of the righteous.
- 20 Justice, and only justice, you shall follow, that you may live and inherit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 ² "If there is found among you, within any of your towns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 man or woman who does what i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your God, in transgressing his covenant,
- ³ and has gone and served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or the sun or the moon or any of the host of heaven, which I have forbidden,
- 4 and it is told you and you hear of it, then you shall inquire diligently, and if it is true and certain that such an abomination has been done in Israel,
- ⁵ then you shall bring out to your gates that man or woman who has done this evil thing, and you shall stone that man or woman to death with stones.
- 6 On the evidence of two witnesses or of three witnesses the one who is to die shall be put to death; a person shall not be put to death on the evidence of one witness.
- ⁷ The hand of the witnesses shall be first against him to put him to death, and afterward the hand of all the people.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 8 "If any case arises requiring decision between one kind of homicide and another, one kind of legal right and another, or one kind of assault and another, any case within your towns that is too difficult for you, then you shall arise and go up to the place that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 9 And you shall come to the Levitical priests and to the judge who is in office in those days, and you shall consult them, and they shall declare to you the decision.
- 10 Then you shall do according to what they declare to you from that place that the LORD will choose. And you shall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they direct you.
- 11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that they give you, and according to the decision which they pronounce to you, you shall do. You shall not turn aside from the verdict that they declare to you, either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 12 The man who acts presumptuously by not obeying the priest who stands to minister there before the LORD your God, or the judge, that man shall die.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Israel.
- 13 And all the people shall hear and fear and not act presumptuously agai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누군가를 내면의 본질에 의해 판단하기 전에 외모로 판단하였다가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과 성품을 훼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caused damage to one's character and integrity because you judged the person by what you saw on the surface (outside) instead of how the person is on the inside? Have you ever repeated that mistake?

사람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지도자 는, 지도자 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의 어떠한 성품을 덕목으로 가져야 할까요? (18, 20절)

As a person in a leadership position and as a Christian who is called to shine the light of Christ in this world, what character of God should we try to have in us and demonstrate in life? (18; 20)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의 – 하나님의 사람의 언행과 판단의 기준

Righteousness - A Standard of Speech and Action for People of God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지도자의 기준과 자질,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 공의에 입각한 판결을 지시하셨습니다(16:18-20). 지도자들의 판결은 사리사욕을 배제하여야 했고, 가장 완악한 범죄인 우상 숭배자들에게 조차도 편견과 감정, 그리고 심증에 의한 판결을 자제하고 법정 증거주의를 본질로 하여 판결하게 하셨습니다(17:2-7). 진노 중에서도 공정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방 법정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상소에 의해 중앙 법정의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규정에 따라 판결하게 하심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 하였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가장 큰 권위가 되었습니다(17:8-13). 이 중앙 법정은 훗날 제사장, 랍비, 장로 등 3계급의 정회원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본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사리사욕을 가지고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한 영혼의 인격을 훼손하지는 않습니까?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그러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판단과 언행의 기준은 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The Lord gives clear guidelines regarding how appointed judges and officials should judge the people and administer justice with fairness (vv. 18-20). The appointed judges and officials should be free from any self-interest in their judging and must judge based only on the evidence, rather than their feelings or biases, even as they judge idol worshippers (Deut 17:2-7). It was important for them in their judgments to reflect fairness and mercy that their righteous God demonstrates even in times of wrath. Where local courts were not able to render a judgment, they were instructed to bring those cases to the Levitical priests and to the judge who will then render a judgment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The purpose of this protocol wa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o demonstrate that ultimate sovereignty and authority lie in the Lord (Duet 17:8-13). This court system later developed into the ultimate decision making body known as the "Sanhedrin" Council that is composed of 71 members made up of priests, rabbis, and elders.

In this sens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Sanhedrin council was to provide fair judgments for and righteous rule over the people. However, after being influenced by self-interest, they ended up committing the sin of executing Jesus to death after passing a wrong judgment on Jesus. It is possible that we can also make similar mistakes. However, if we repeat the mistakes, then we must recognize that we lack God's righteousness in us and we must repent. The basis of all speech and action of a Godly person should be righteousnes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토요일·Sat

2022 Oatobox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Israel's True Prophe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이 금 지되었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민이 될 것이 지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갈 참 선지자를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 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 새521장(통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묵상·신명기 18:9-22

통독·신명기 18장

- 9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 10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 11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 지 말라
- 12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 13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 14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1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 16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 17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 18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 19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 20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 21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 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 22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선지자가제 마음대로 한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Reading Insight

The Lord forbids the people of Israel to follow the detestable practices of the nations in the land of Canaan that they are about to possess. The Lord proves His love for Israel by promising to provide a true prophet for Israel who will guide the people according to the Lord's will.

☐ Hymn521 Straight Is the Gate to Salvation

Meditation • Deuteronomy 18:9-22

Reading Plan • Deuteronomy 18

- 9 "When you com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you shall not learn to follow the abominable practices of those nations.
- 10 There shall not be found among you anyone who burns his son or his daughter as an offering, anyone who practices divination or tells fortunes or interprets omens, or a sorcerer
- 11 or a charmer or a medium or a necromancer or one who inquires of the dead,
- 12 for whoever does these things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And because of these abominations the LORD your God is driving them out before you.
- 13 You shall be blameless before the LORD your God,
- 14 for these nations, which you are about to dispossess, listen to fortune-tellers and to diviners. But as for you, the LORD your God has not allowed you to do this.
- 15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 from your brothers--it is to him you shall listen--
- 16 just as you desired of the LORD your God at Horeb on the day of the assembly, when you said, 'Let me not hear again the voice of the LORD my God or see this great fire any more, lest I die.'
- 17 And the LORD said to me, 'They are right in what they have spoken.
- 18 I will raise up for them a prophet like you from among their brothers. And I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and he shall speak to them all that I command him.
- 19 And whoever will not listen to my words that he shall speak in my name, I myself will require it of him.
- 20 But the prophet who presumes to speak a word in my name that I have not commanded him to speak, or who speaks in the name of other gods, that same prophet shall die.'
- 21 And if you say in your heart, 'How may we know the word that the LORD has not spoken?'--
- 22 when a prophet speaks in the name of the LORD, if the word does not come to pass or come true, that is a word that the LORD has not spoken; the prophet has spoken it presumptuously. You need not be afraid of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 전한 삶의 모습과 언행은 어떠한 것일까요?

The Lord told the people of Israel to be blameless before the Lord (v. 13). What do you think it means to be blameless? What does a blameless life look like?

참 선지자의 구별법(22절)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무 엇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까요? Based on how a true prophet is discerned (v. 22), what can you say about what it means to be a true Christian? How can we prove to others that we are

God Moment

Christians?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참 선지자의 증거,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

The Evidence of a True Prophet and a True Christian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성실히 준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참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약속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모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신 34:10)이고, 제사장(출24:6~8)이며, 왕(신 33:5)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혈통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킴 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18~19, 22절). 영원한 왕이시자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그분의 인격과 성품, 언행, 삶의 모습, 그리고 권위와 권세로 당신이 그 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 엇을 통해 입증되고 증거되어야 할까요? 과연 나를 통해 내가 믿는 하 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God promises to love and care for the people of Israel by giving them a true prophet after Moses if they obey the laws and decrees. This prophet will bring the words of the Lord to the people. Although God's promised prophet can be understood first as referring to all the prophets who will come after Moses, we should understand it as ultimately referring to Jesus Christ who will be born to them from the bloodline of Israel. Like Moses who served Israel as a prophet (34:10), priest (Exod 24:6–8) and king (33:5), Jesus is the true Prophet, High Priest and King.

Another important thing to note is that one showed that he/she is a true prophet who is sent by God by speaking only in the name of God, speaking only what God commanded to speak, and by having everything that was spoken come to pass (Duet 18:18–19: 22). Similarly, Jesus who is the eternal King and prophet showed that he is the Christ by demonstrating the character, deeds, life, authority, and power of God. If so, then how can we show the world that we are a people who have God as our Father and that we are Christians who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Do people around us see God when they see us and experience the fragrance of Christ when they are with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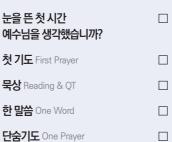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6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OCTORER

"믿음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면/나타내면 안되는 것인가요?"

홍삼열 목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A)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현재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에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보면 자기가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 같은 것은 없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 없는 삶,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것이다. 단 차이점은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즉문제가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상태로까지 악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생기는 실망이나 부러움이나 의심 같은 감정들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대한 것에 못 미칠 때는 실망을 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고, 이해가되지 않을 때는 의심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런 인간의 기본 감정들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시편이다. 시편을 읽어보면 온갖 원초적인 감정들이 잘 묘사되어 나온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며 그들이 멸 망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고 통곡하는 기도, 죽는 것이 두려우니 빨 리 구해달라는 기도 등등,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다윗, 아삽, 솔로몬 외 여럿)에게서 발견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묘사한 시기/부러움의 감정이다. 아삽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

인은 잘 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악인은 악행을 한 대가를 톡톡히 받아야 하고, 오래 살지 말아야 하고,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사는 동안 별큰 어려움 없이 살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비교적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빨리 벌을 주시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여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게 하냐는 것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아플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부러웠다. 자기도 악한 사람같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고, 기도의 시를 통해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였던 것이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하는 오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그를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시 73: 2~3)

우리가 악행 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이 들 때, 혹은 그에 비등한 마음의 의문이나 불만이나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자세이다. 자기 마음이 괴롭고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딴청을 피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문제 해결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부러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간청도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비록 당장에는 자초지종을 다 보여주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런 아버지께 못할 말이 없고 쏟아놓지 못할 문제가 없다.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 놓으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월요일·Mon

2022 October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

Israel's Spiritual Warfar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관계된 규례가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성전(聖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악을 응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건설이 목적이었으므로 무분별한 파괴와 수탈은 절제하여야 했습니다.

♬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묵상・신명기 20:10-20

통독·신명기 19-20장

- 10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 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 11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 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 를 섞기게 할 것이요
- 12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 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 14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 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 15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 1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 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 17곧 혯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 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 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 18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 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 19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 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Reading Insight

Rules were given to the Israelites regarding conquering the Canaanites and engaging in battles. Since the battles with the Canaanites were considered the divine war to build God's kingdom in the land of Canaan, they were instructed to not destroy ruthlessly and to not take whatever plunder they wanted from the Canaanites. The prime purpose of the Israelites' battles was to punish evil and erect the just kingdom of God.

Hymn357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 Deuteronomy 20:10-20

Reading Plan • Deuteronomy 19–20

- 10 "When you draw near to a city to fight against it, offer terms of peace to it.
- 11 And if it responds to you peaceably and it opens to you, then all the people who are found in it shall do forced labor for you and shall serve you.
- 12 But if it makes no peace with you, but makes war against you, then you shall besiege it.
- 13 And when the LORD your God gives it into your hand, you shall put all its males to the sword,
- 14 but the women and the little ones, the livestock, and everything else in the city, all its spoil, you shall take as plunder for yourselves. And you shall enjoy the spoil of your enemies, which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 15 Thus you shall do to all the cities that are very far from you, which are not cities of the nations here.
- 16 But in the cities of these peoples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for an inheritance, you shall save alive nothing that breathes,
- 17 but you shall devote them to complete destruction, the Hittites and the Amorites,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 18 that they may not teach you to do according to all their abominable practices that they have done for their gods, and so you sin against the LORD your God.
- 19 "When you besiege a city for a long time, making war against it in order to take it, you shall not destroy its trees by wielding an axe against them. You may eat from them, but you shall not cut them down. Are the trees in the field human, that they should be besieged by you?
- 20 Only the trees that you know are not trees for food you may destroy and cut down, that you may build siegeworks against the city that makes war with you, until it fall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영토 밖의 민족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제의하게 하 셨으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진 멸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18절)

Why did God suggest peace with the people outside the land of Canaan but to destroy the Canaanites completely? (vv. 17–18)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 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에게서 완 전히 없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What are the things within me that I need to completely destroy as a Christian who engages in the spiritual war in this worl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나쁜 싸움, 좋은 싸움 Bad Fight and Good Fight

일반적으로 '싸움'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인상을 줍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라,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들으면서 성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아이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맨날 싸움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은 "저놈,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날마다 맞고만 다니면 확김에 "너는 주먹 뒀다 뭐 했냐? 너도 같이 때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싸움을 권하고 조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하라고 권하십니다. 아니,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나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싸움꾼이 되라고 하실까요? 바로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즉 좋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뜻에 굴복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린다는 절대 진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종목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 과의 싸 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 '미움과 시기와의 싸움', '교만과 탐 욕과의 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의 싸움' 등입니다. 좋은 싸움에서 이기 는 자가 됩시다.

Fighting in general has a bad image. From a young age, we were taught to not fight with our siblings and friends. Therefore, we looked down and despised those kids who were good at fighting as well as being afraid of them. Those kids who were prone to fight with others raised concerns about what they would become when they grew up. If your child was beaten often in fights, you could easily say, "use your fist and fight back!" But no one promotes fighting first. However, God commands the Israelites to fight and engage in battles. It was not a mere recommendation but a strong commandment. Why did God command the Israelites, the good people, to fight even though fighting is regarded as essentially bad? There are good battles according to God. 1 Timothy 6:12 explains what it is to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he good fight for the faith for the Israelites in our scripture is to destroy the ones who confronted God. The good fight will bring victories for the people who listen to God and obey God. This was a declaration of the unchanged truth that God's ultimate justice reigns.

In order to witness the justice of God, we must engage in the good fight for the faith. In this fight, we must win to preserve our faith in the name of God. The list of the things we have to fight the good fight to win over is "fight against the temptation to not read the bible and disrupt our prayers," "fight against the desires of our flesh," "fight against the lure of money," "fight against hatred and jealousy," "fight against arrogance and greed," and "fight against unforgiveness." Let us become the fighters who win with fait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នុងឧទ្ធ·Tue

2022 October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법

God's Law to Change the Worl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종교와 의식법에 대한 규례 외에 하나님께서는 생활 전반의 사회법을 통해 인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근절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 그의 공의가 드러나고 증거 되어야 합니다.

♬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묵상·신명기 21:10-23

통독·신명기 21장

- 10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 11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 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 12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 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 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 14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 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 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 16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 17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 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 18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 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 종하지 아니하거든
- 19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 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 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하리라
- 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 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Reading Insight

Along with the ritual laws of the religion,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protect and preserve human lives and the weak of their society. This social rule includes the protection laws for keeping families together and cutting off any sin that will contaminate the land God reigns over. The created world of God must exhibit God's justice only as it is ruled by God's laws.

Hymn220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Meditation • Deuteronomy 21:10-23

Reading Plan • Deuteronomy 21

- 10 "When you go out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the LORD your God gives them into your hand and you take them captive,
- 11 and you see among the captives a beautiful woman, and you desire to take her to be your wife,
- 12 and you bring her home to your house, she shall shave her head and pare her nails.
- 13 And she shall take off the clothes in which she was captured and shall remain in your house and lament her father and her mother a full month. After that you may go in to her and be her husband, and she shall be your wife.
- 14 But if you no longer delight in her, you shall let her go where she wants. But you shall not sell her for money, nor shall you treat her as a slave, since you have humiliated her.
- 15 "If a man has two wives, the one loved and the other unloved, and both the loved and the unloved have borne him children, and if the first-born son belongs to the unloved.
- 16 then on the day when he assigns his possessions as an inheritance to his sons, he may not treat the son of the loved as the firstborn in preference to the son of the unloved, who is the firstborn,
- 17 but he shall acknowledge the firstborn, the son of the unloved, by giving him a double portion of all that he has, for he is the firstfruits of his strength. The right of the firstborn is his.
- 18 "If a man has a stubborn and rebellious son who will not obey the voice of his father or the voice of his mother, and, though they discipline him, will not listen to them,
- 19 then his father and his mother shall take hold of him and bring him out to the elders of his city at the gate of the place where he lives,
- 20 and they shall say to the elders of his city, 'This our son is stubborn and rebellious; he will not obey our voice; h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 21 Then all the men of the city shall stone him to death with stones.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and all Israel shall hear, and fear.
- 22 "And if a man has committed a crime punishable by death and he is put to death, and you hang him on a tree,
- ²³ his body shall not remain all night on the tree, but you shall bury him the same day, for a hanged man is cursed by God. You shall not defile your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for an inheritan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곳이 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 야 할까요?

How do churches and Christians conduct their lives to prove to the societies and nations they believe the truth that God reigns?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양심은 세 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내 삶에 적용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Let's think about how we apply God's words into our lives when our conscience senses the conflict between God's laws and the laws of this worl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법 정신 – 사랑과 공의

Spirit of God's Laws - Love and Justice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규례의 본질은 처벌과 심판이 아닌, 죄로부터의 구별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받지 않지만, 동시에 선민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처럼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반영이었기에, 그 법 안에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질에 대해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자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되기 위해 요구되는 성결의 과정(12-13절)은 죄인 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참회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으며, 나무에 달렸던 범죄자의 시체 처리법(22-23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치욕적 형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위업을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법 정신이 보여주듯이,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The essence of God-given laws and rules is not for punishment and judgment, but for the distinction from sins and the actualization of God's justice accordingly. Noone will be exempt from God's justice but everyone including God's chosen people will be punished if their sins will bring evil to the community. God's law is the combination of God's love and justice. In other words, God's law is part of God's characteristics.

Since God's law is the reflection of God's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this law reveals the love and sacrifice of Jesus Christ and the identity of Christians. The purification process for female captives to become wives of the Israelites (vv. 12–13) indicates how sinful human beings become brides of Jesus Christ through true repentance (cleansing process). The process of taking care of the body of a hanged man (vv. 22–23) reveals how Jesus Christ died in a similar shameful punishment in order to achieve God's salvation plan for the whole of humankind. The main call for church and Christians is to actualize God's justice and Jesus' love on this earth which will prove that God's justice and love in His law was completed in Jesus Christ.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수요일·Wed

2022 October

순결한 자들의 사랑의 실천

The Practice of Love of the Pur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선민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과 거룩을 지켜야 했으며, 택함 받은 선민의 거룩함을 이웃 사랑을 통해 실천해야 했습니다.

♬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묵상·신명기 22:1-12

통독·신명기 22장

- 1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 2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 3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말 것이며
- 4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 5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 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 께 가증한 자이니라
- 6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 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 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 7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 8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 9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 10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 11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 12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Reading Insight

The Israelites were called to practice the holiness of God's chosen ones through loving their neighbors and kept their purity and their holiness which distinguished them from the world.

☐ Hymn420 Take Time to Be Holy

Meditation • Deuteronomy 22:1-12

Reading Plan • Deuteronomy 22

- 1 "You shall not see your brother's ox or his sheep going astray and ignore them. You shall take them back to your brother.
- ² And if he does not live near you and you do not know who he is, you shall bring it home to your house, and it shall stay with you until your brother seeks it. Then you shall restore it to him
- ³ And you shall do the same with his donkey or with his garment, or with any lost thing of your brother's, which he loses and you find; you may not ignore it.
- 4 You shall not see your brother's donkey or his ox fallen down by the way and ignore them. You shall help him to lift them up again.
- 5 "A woman shall not wear a man's garment, nor shall a man put on a woman's cloak, for whoever does these things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your God.
- 6 "If you come across a bird's nest in any tree or on the ground, with young ones or eggs and the mother sitting on the young or on the eggs, you shall not take the mother with the young.
- **7** You shall let the mother go, but the young you may take for yourself,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 8 "When you build a new house, you shall make a parapet for your roof, that you may not bring the guilt of blood upon your house, if anyone should fall from it.
- **9** "You shall not sow your vineyard with two kinds of seed, lest the whole yield be forfeited, the crop that you have sown and the yield of the vineyard.
- 10 You shall not plow with an ox and a donkey together.
- 11 You shall not wear cloth of wool and linen mixed together.
- 12 "You shall make yourself tassels on the four corners of the garment with which you cover yourself.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나의 언행과 행실은 무엇입니까?

What areas of my behaviors and words need to change in order to witness my identity as a Christian?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내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어느 것이 나의 참 모습 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없 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 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Are there differences in me when no one is around compared to when I am around others? Which one is the reflection of my true identity? Do I live with the conviction that God watches me even when nobody is aroun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CA)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

Worship-Centered Christians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9-11절)는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성별 된 공동체로써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의 이교적 풍습과 가증한 행실과 타협하지 말고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유지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을 금지하셨으며, 여호와 신앙은 세속적인 이방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도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되는 여인의 순결에 대한 법과 순결하지 못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영적, 신앙적 순결의 진리에 대한 교훈과, 여호와 신앙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영적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순결하게 구별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 랑을 말이 아닌 적극적 행동 규범으로 실천해야 했습니다(1-8절). 믿는 자의 신앙과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로써 하나님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며, 나의 생활이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God commanded that the Israelites should not sow two kinds of seeds, should not plow the fields with an ox and donkey together, and should not wear a cloth mixed with wool and linen (vv. 9-11). These laws helped the Israelites to keep themselves as a set-apart community who followed the purity of worshiping YHWH God only. Even in their everyday lives, God warned the Israelites to be very careful to not compromise and follow any pagan custom and detestable behaviors of the Canaanites. These laws helped the Israelites to keep their purity. God prohibited the people under God's law from compromising or assimilating with worldly people. Also God was very clear to the Israelites that faith in YHWH God can't be mixed with secular customs and trends as well as secular pagan faith. From verses 13 to 30. the laws regarding the purity of women and the punishment for the people who are unclean explains the lessons on spiritual purity and truth for the people of God, the brides of Jesus Christ, These verses explain the duty of the spiritual community regarding the constant efforts to keep us from falling into the decadence of losing our faith and lovalty to YHWH God.

The ones who are set apart according to God's law need to practice the love for YHWH God not only with words but also with everyday deeds (vv. 1–8). Believers have to express their love for God in concrete settings of their lives since their faith and lives are inseparable. In other words, our lives become worship itself for God, our daily living declares that we are Christian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0

2022 October

거룩한 자들의 긍휼과 성실

Mercy and Faithfulness of the Holy On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스라엘의 신앙 보존과 순결을 위해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오지 못할 자들에 대한 규례와 전쟁 중에서도 지켜야 할 정결례가 주 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보존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 에 성실하고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 새459장(통514장) 누가 주를 따라

묵상·신명기 23:15-25

통독·신명기 23장

- 15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 16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 17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 18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 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 19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 지 말 것이라
- 20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 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 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 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 22네가 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 23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 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 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 24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 25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 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 지는 맘지니라

Reading Insight

To protect the faith and purity among the Israelites, there were rules prohibiting unclean people from entering the assemblies and rules to cleanse the people who were called to keep the purity codes even during war. The Israelites who were kept pure and holy by God are called to be sincere before God and share their mercy to others.

Hymn459 Who Is on the Lord's Side

Meditation • Deuteronomy 23:15-25

Reading Plan • Deuteronomy 23

- 15 "You shall not give up to his master a slave who has escaped from his master to you.
- 16 He shall dwell with you, in your midst, in the place that he shall choose within one of your towns, wherever it suits him. You shall not wrong him.
- 17 "None of the daughters of Israel shall be a cult prostitute, and none of the sons of Israel shall be a cult prostitute.
- **18** You shall not bring the fee of a prostitute or the wages of a dog in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in payment for any vow, for both of these are an abomination to the LORD your God.
- 19 "You shall not charge interest on loans to your brother, interest on money, interest on food, interest on anything that is lent for interest
- 20 You may charge a foreigner interest, but you may not charge your brother interest,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at you undertake in the land that you are entering to take possession of it.
- 21 "If you make a vow to the LORD your God, you shall not delay fulfilling it, for the LORD your God will surely require it of you, and you will be guilty of sin
- 22 But if you refrain from vowing, you will not be guilty of sin.
- 23 You shall be careful to do what has passed your lips, for you have voluntarily vowed to the LORD your God what you have promised with your mouth.
- 24 "If you go into your neighbor's vineyard, you may eat your fill of grapes, as many as you wish, but you shall not put any in your bag.
- 25 If you go into your neighbor's standing grain, you may pluck the ears with your hand, but you shall not put a sickle to your neighbor's standing grai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아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 엇일까요?

What is the qualification to come before God as a holy one?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 하나님께 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예물은 어 떤 예물입니까?

What are the best gifts we can offer to God which would please Him the most?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CA)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Let My Daily Life Speak

어느 목사님이 유학하러 와서 공부하며 조그마한 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켓 사장님이 그렇게 종업원들을 착취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뒤돌아 앉아 항상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인 자신이 시험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본 한 장면이떠오릅니다. 윤락녀들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포주가 일요일에도 쉬지 말고손님 받으라고 아가씨들을 내몰면서, 자신은 주일 지키러 교회 간다고 옆에성경책 끼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서, 손님을 기다리는 아가씨들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우선의 관점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입니다. 성숙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로 삶의 관점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단계의 성숙 과정을 더 거쳐야만 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는 생활과 예배, 생활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교회를 나서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생활과 신앙의 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의 100%일치를 통하여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생활이 내가 하나님 믿는 자임을 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 그는 바로 나의 생활이 내 신앙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A pastor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worked part time in a grocery store. The pastor saw that the owner of the store underpaid or did not justly pay his employees and always spoke ill of the employees. Then the owner of the store turned around at his desk and read the Bible diligently. Even the pastor questioned what kind of Christian faith this owner had. I watched a movie about a pimp who forced his prostitutes to not take Sunday off while he went to church carrying his own bible and passed through the prostitutes who were waiting for customers every Sunday. The most imminent priority of our lives is what to do to provide for ourselves. After growing pains, some people ask questions like "How do I want to live my life?" or "What kind of person do I want to become?" As believers, we are called to go through a growing process to ask the question, "How do I want to believe in God?"

Our lives, worship, daily choices, and faith all have to be consistent and in tune with the same goals. There are many people who choose to become Christians when they worship God in church. When they step out of the church building, they become the most secular ones. Let us seek to be 100% consistent between our everyday lives and our faith. By doing so, our daily lives will proclaim that we are Christians who believe in God. The ones who are qualified to enter the assemblies of YHWH are the ones whose daily lives speak for their fait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П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авы Fri 21

2022 October

공의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Justi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는 것이 거룩한 선민의 기본 덕목임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 게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묵상·신명기 24:10-22

통독·신명기 24-25장

- 10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 11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 12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 13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 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 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 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 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될 것임이라
- 16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 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 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 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 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Reading Insight

God made Israel form a community of love in His righteousness. He reminded the Israelites that He is God who will not turn away from the weak but will give them strength and comfort.

Hymn400 Jesus, Hide Me

Meditation • Deuteronomy 24:10-22

Reading Plan • Deuteronomy 24-25

- 10 "When you make your neighbor a loan of any sort, you shall not go into his house to collect his pledge.
- 11 You shall stand outside, and the man to whom you make the loan shall bring the pledge out to you.
- 12 And if he is a poor man, you shall not sleep in his pledge.
- 13 You shall restore to him the pledge as the sun sets, that he may sleep in his cloak and bless you. And it shall be righteousness for you before the LORD your God.
- 14"You shall not oppress a hired servant who is poor and needy, whether he is one of your brothers or one of the sojourners who are in your land within your towns.
- 15 You shall give him his wages on the same day, before the sun sets (for he is poor and counts on it), lest he cry against you to the LORD, and you be guilty of sin.
- 16 "Fathers shall not be put to death because of their children, nor shall children be put to death because of their fathers. Each one shall be put to death for his own sin.
- 17 "You shall not pervert the justice due to the sojourner or to the fatherless, or take a widow's garment in pledge,
- 18 but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Egypt and the LORD your God redeemed you from there; therefore I command you to do this.
- 19 "When you reap your harvest in your field and forget a sheaf in the field, you shall not go back to get it. It shall be for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 20 When you beat your olive trees, you shall not go over them again. It shall be for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 21 When you gather the grapes of your vineyard, you shall not strip it afterward. It shall be for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 22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therefore I command you to do thi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누군가가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나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15절).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않거나 부당한 일을 겪게한 적이 있습니까?

It is said that if someone appealed to God's judgment against me, that would become my sin (v. 15). Have you ever been disrespectful to others or inflicted injustice on others?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서 내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 서, 무엇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맡 기셨을까요?

Christians are stewards of everything that God has entrusted to them. Why would God entrust all of your possessions to you? For whom and for what did God entrust those things to you?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CA) 산타마리아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2001년 하버드대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의 정의"를 찾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생활임금 캠페인"으로 불린 이캠페인은 50여 명의 학생들이 비폭력 직접행동의 하나인 연좌시위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정의'였습니다. 그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일하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저임금을 받고 있는 1,000여 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3주에 걸쳐 연좌농성을 이어갔고, 결국 하버드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약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지만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한 정의를 자신들이 실현해 주고자 나섰던 것이며,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자신들이 배운 '정의'를 현실에서 실천하기위해 애썼기에 후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사회의 정의를 위해 그들이 앞장서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허비할 시간에 한 자라도 공부 더하고 한 시간이라도 일 더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인맥을 넓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답을 찾았으면 즉시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In 2001, Harvard University launched a campaign called "to find justice where I am." This was also known as the "Living Wage Campaign." This campaign began with about 50 students participating in a non-violent sit in demonstration. What they demanded was "social justice." This lasted for three weeks, and they demanded the university pay minimum living wages for 1,000 campus workers. Eventually Harvard University raised the wages of campus workers. The fight to guarantee living wages wasn't for the students but it was to assist the workers to have fair living wages. Social justice wasn't mere ideology but something to be done and the students at Harvard didn't turn their blind eyes from everyday workers on their campus. Harvard University still is at the frontline to fight for social justice and continues to lead this movement as one of the leading universities in the

God is righteous and He commands His churches to live out righteousness and justice. The reason we go to church should never be to become successful or powerful. If this is the purpose of your faith, it would be better to study harder, work harder, and make more connections to expand your network of influence. What is justice? To find the answer, you have to go to the Bible and when you find the answer, act on it immediately. That's how you carry out God's justi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ER일·Sat

2022 October

신앙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The Essence of Faith Is Gratitud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 땅에서의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상의 표시 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감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 새427장(통516장) 맘 가난한 사람

묵상·**신명기 26:1-11**

통독·신명기 26장

- 1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 2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맏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 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 3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 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 렀나이다 할 것이요
- 4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 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 5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 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 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 6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 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 7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 8여호와께서 강한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 9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 셨나이다
- 10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맏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 11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Reading Insight

After the Israelites settled in Canaan, they were commanded to give thanks to God with their first harvest in the new land. Giving thanks to God acknowledged God's sovereignty. Those who fully obey God's commands will be given opportunities to give thanks to God

🎵 Hymn427 Blest Are the Poor in Heart

Meditation • Deuteronomy 26:1–11

Reading Plan • Deuteronomy 26

- 1 "When you com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for an inheritance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live in it,
- 2 you shall take some of the first of all the fruit of the ground, which you harvest from your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you shall put it in a basket, and you shall go to the place that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to make his name to dwell there.
- 3 And you shall go to the priest who is in office at that time and say to him, 'I declare today to the LORD your God that I have com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our fathers to give us.'
- ⁴ Then the priest shall take the basket from your hand and set it down before the altar of the LORD your God.
- 5 "And you shall make response before the LORD your God, 'A wandering Aramean was my father. And he went down into Egypt and sojourned there, few in number, and there he became a nation, great, mighty, and populous.
- 6 And the Egyptians treated us harshly and humiliated us and laid on us hard labor.
- ⁷ Then we cried to the LORD, the God of our fathers, and the LORD heard our voice and saw our affliction, our toil, and our oppression.
- 8 And the LORD brought us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with great deeds of terror, with signs and wonders.
- ⁹ And he brought us into this place and gave us thi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 10 And behold, now I bring the first of the fruit of the ground, which you, O LORD, have given me.' And you shall set it down before the LORD your God and worship before the LORD your God.
- 11 And you shall rejoice in all the good that the LORD your God has given to you and to your house, you, and the Levite, and the sojourner who is among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고 준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18-19절)

Why should believers strive to keep and obey God's commands? (vv. 18–19)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 시는 참된 감사의 모습은 어떤 것 일까요?

What is the true picture of thanksgiving that God expects of those who believe in Him?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CA)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꿈꾸던 일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In Spite of Having All My Dreams Come True...

오래전 유학생 시절, 대부분의 유학생이 그러하듯 학비와 생활비조차도 박차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던 그 시절,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하나도 한 달에 한 번, 교회 전도사 사례비 받는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고, 햄버거를 한 입 물고 감격스러워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일식 뷔페가 생겼을 때, 교회 목사님이 저를 처음으로 그곳에 데려 갔는데 저는 제가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무제한 고깃집이 경쟁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 맛있고 비싼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다니, 미국생활은 역시 천국의 연속이었고, 이것이 아메리칸드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돌이켜 보면 과거에 부러워했던 것들, 저런 것들을 내가 가져볼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평범한 사람은 꿈도 못 꾸던 자가용을 누구나 한두 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컴퓨터, 노트북, 핸드폰(초창기에 벽돌만 한 핸드폰이 부의 상징이었죠?), 태블릿 등등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질은 분명히 더 높아졌는데 왜 더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Long ago, when I w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the U.S., like most international students, tuition and living expenses were overwhelming. In those days anything tasted so good. McDonald's Big Mac was a special food that I treated myself with once a month when I got paid, and I still can vividly remember the tingling sensation of my taste buds when I took a bite of the Big Mac. When the first Japanese buffet restaurant opened, my senior pastor took me there for the first time, and I thought I was in heaven. After that, unlimited meat BBQ buffet restaurants became common. Eating all you can eat of delicious and expensive meat was amazing. Life in America was amazing and it felt like the fulfillment of the American dream.

Now I have all the things that I once dreamed of. My family has two cars which wasn't normal for most families when I was growing up in Korea. Every house has computers, laptops, cell phones (in the early days, brick size cell phones were a symbol of wealth), tablets, etc. Our quality of life has definitely improved but why aren't we happier? I concluded it is because we are not thankful. If we are not thankful, it means we are not satisfied. God gives more thankful circumstances to those who are grateful. True gratitude and thanksgiving start when we acknowledge the abundance God has given to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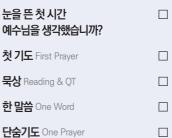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3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 나 님 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OCTORER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준협 목사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GA)

저는 목사지만 기도가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사입니다. 20대 후반 강원도 양양의 시골교회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시골의 언덕 위에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이 1년 12달 4시 30분이었습니다. 한분 계신 장로님은 언제나 새벽 3시 40분 정도에 교회 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죠. 사택이 옆에 있기에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항상 새벽마다 "죽여~ 죽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이 오셔서 "주여~" 소리치시며 통성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시간까지 자고 있던 저에게 "죽여~" 하는 소리로 들렸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씻고 양복을 입은 후 새벽기도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니 장로님보다 먼저 나가야지'하는 마음으로 언제부터인가 3시 20분에장로님보다 먼저 나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힘들어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20세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해 당시 나이 70에 가까운 장로님은 50년 세월 동안 몸에 익은 시간이셨지만, 한참 수면 호르몬이 풍성하게 배출되던 젊은 나이의 저에겐 새벽기도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기도가 고민이 되어 기도를 배우고 싶어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선배들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신 분은 부산 괴정교회를 담임하시던 고 박효섭 목사님이십니다. 동방교부들을 연구하시며 정교회의 스케테 양식의 수도원 운동을 한국에 소개해 주셨던 분입니다. 박 목사님께 동방교회의 영성과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감리교 입석 수련원을 찾아 저와 같이 기도가 고픈 목회자 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했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 님께서 걱정하게 하라!" 기도하면 자신의 근심이 곧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뀐다는 아주 대담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 세상을 품은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존 번연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귐도 없기때문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가까울 뿐이라는 것이죠. 또 C.S. 루이스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자녀 된 특권을 사용치 못하게 하며 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시킬 위대한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나 영성가들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기도응답이기 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측근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자주 독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측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생존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살기 위해서 기도해야할 것 같습니다.

^{вдер} моп

2022 October

저주도 어약입니다

Curse Is alos a Covena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7장부터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직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모든 말 씀을 돌 위에 기록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시 주어질 저주의 규례를 서약하게 했습니다.

♬ 새29장(통29장) 성도여 다함께

묵상·신명기 27:16-26

통독·신명기 27장

- 16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메 할지니라
- 17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18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19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 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0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1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2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 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메 할지니라
- 23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메 할지니라
- 24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5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6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Reading Insight

Moses' third sermon begins from Chapter 27. Immediately after Moses entered Canaan, he had all the laws written on stone for the Israelites to remember and obey the rules forever. Moses commanded his people to recite the twelve curses that would follow if they disobey God's law.

Hymn29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Meditation • Deuteronomy 27:16-26

Reading Plan • Deuteronomy 27

- 16 "Cursed be anyone who dishonors his father or his mother.'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17 "'Cursed be anyone who moves his neighbor's land-mark.'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18 "Cursed be anyone who misleads a blind man on the road.'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19 "'Cursed be anyone who perverts the justice due to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20** "'Cursed be anyone who lies with his father's wife, because he has uncovered his father's nakedness.'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21 "Cursed be anyone who lies with any kind of animal.'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22 "'Cursed be anyone who lies with his sister, whether the daughter of his father or the daughter of his mother.'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23 "'Cursed be anyone who lies with his mother-in-law.'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24 "'Cursed be anyone who strikes down his neighbor in secret.'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25 "Cursed be anyone who takes a bribe to shed innocent blood.'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 26 "Cursed be anyone who does not confirm the words of this law by doing them.'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6절) Why were the Israelites told to build an altar to God with unfinished stones without using iron tools and to offer burnt offerings? (vv. 5-6)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로 하여 금 반복되는 저주의 메시지에 '아 멘'으로 화답하게 했을까요? (16-26절)

Why did God make Israel respond with "Amen" after each of the 12 curses? (vv. 16–26)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어떤 언약의 성취자가 될 것인가?

What Covenant Will You Be Fulfilling?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6개 지파씩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에 양분하여 서게 한 후,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경우 주어질 저주의 규례를 서약하게 했습니다. 12가지 저주의 선언은 십계명의 2가지 본질적 사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곁에 있는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메시지를 거듭 반복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축복만 언약이 아닙니다. 저주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 단호한 저주를 내리실 것을 이스라엘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축복의 언약을 성취할 것인지, 저주의 언약을 성취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던 축복의 언약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언약까지 선포하심으로써,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God separated the 12 tribes of Israel who entered Canaan into two groups of six, one group standing on Gerizim, the mountain of blessing, and the other 6 tribes on Ebal, the mountain of curses. The declaration of the 12 curses emphasize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Ten Commandments: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s. He made it clear that the love for God must be practiced by loving their neighbors. The curses were repeated over and over to teach Israel that they should be fully guarded against iniquity.

This covenant didn't only include blessings. Curses were also part of the covenant. God promised eternal blessings and grace to Israel for obeying the commandments and laws, but at the same time He made it clear to Israel that if they disobeyed God, He would bring a firm curse. Whether to fulfill the covenant of blessing or the covenant of curse depended entirely on Israel. God made it clear to Israel how His law works. The choice now rested with Israel. They were the people who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choices. How about us? What choices are we making before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October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Consequences of Obedience and Disobedien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질 축복과 저주가 이 스라엘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모 든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묵상·신명기 28:1-6, 15-19

통독·신명기 28장

- 1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이라
- 2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 3성읍에서도복을 받고 들에서도복을 받을 것이며
- 4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 5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 6네가들어와도복을받고나가도복을받을것이니라
- 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이를 것이니
- **16**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 17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 18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 19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Reading Insight

Today's text tells how obedience and disobedience will result in blessings or curses and how it will affect the everyday life of Israel. All blessings and curses were the result of Israel's own choices.

√ Hymn368 Heart Longings

Meditation • Deuteronomy 28:1-6, 15-19

Reading Plan • Deuteronomy 28

- 1 "And if you faithfully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being careful to do all his commandments that I command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 ² And all these blessings sha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if you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 ³ Blessed shall you be in the city, and blessed shall you be in the field.
- 4 Blessed shall be the fruit of your womb and the fruit of your ground and the fruit of your cattle, the increase of your herds and the young of your flock.
- ⁵ Blessed shall be your basket and your kneading bowl.
- 6 Blessed shall you be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shall you be when you go out.
- 15 "But if you will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or be careful to do all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that I command you today, then all these curses sha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 16 Cursed shall you be in the city, and cursed shall you be in the field.
- 17 Cursed shall be your basket and your kneading bowl.
- 18 Cursed shall be the fruit of your womb and the fruit of your ground, the increase of your herds and the young of your flock.
- 19 Cursed shall you be when you come in, and cursed shall you be when you go ou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이스라 엘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어 버린 원인은 누구에게 있으 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13-14절) What and who is the cause of Israel becoming a tail and not the head which is contrary to God's promise? (vv. 13-14)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이 곧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우상(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not to worship other gods. Anything that people love and value more than God is an idol. What idol(s) do you currently serv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CA) 언약교회, 이상호(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저주의 역설 Paradox of the Curse

'순종'과 '언약의 성취'라는 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조건적 미래 시제가 됩니다. 현재에 순종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의 미래에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이 말은 우리가 현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순종과 언약의 성취라는 말 자체가 현재의 인간의 삶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삶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훨씬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는 일 보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생활의 어려움이 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경고가 더 많습니다. 즉 인간의 삶이 저주라고 여겨질 정도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행한다 면, 그 삶에는 반드시 축복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 니다.

The words "obedience" and "fulfillment of the covenant" are inextricably linked. When the condition of obedience was fulfilled, God's covenant of blessing was to be fulfilled. Therefore, it is a future conditional tense: when obedience is fully given in the present, the covenant of blessing will be fulfilled in our future. This could mean that in our present time, we may not fully enjoy God's covenant of blessing. "Obedience" and "fulfillment of covenant" indicate that a life will include portions of strife and anguish. However, God fulfills the covenant of blessing through our obedience amidst the pain and anxieties of human life. Our life is not easy. There are a lot more things that don't go the way we desire. There are more unanswered prayers than answered prayer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we face at home, at work, in business, in school, and in life. Sometimes we feel helpless and there's no way out. But when there is no way out, we must remember that our God is our rescue. Under any circumstance, if we give our full obedience to God, God's promise will be fulfilled.

Deuteronomy 28 has more warnings about curses than blessings. It indicates that sometimes our life will be difficult to the point of feeling like life is afflicted with a curse. However, in the midst of this, if we believe in God's promises and follow His words, we can be assured that the covenant of blessing will surely be fulfill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6

2022 October

새 언약에 참여할 자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New Covena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땅에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 인 새세대와 언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할 자 들은 유아와 여자 및 이방인과 노예까지 포함되었으며, 신분과 혈통 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습 니다

♬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묵상·신명기 29:10-15

통독·신명기 29장

- 10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 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 11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 12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 13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 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 14 내가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 15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 지이니

Reading Insight

God is setting up a covenant with the new generation while in the land of Moab, as they were about to enter Canaan which they conquered. Those who will participate in this new covenant include infants, women, gentiles, and slaves, and all those who swear to keep God's covenant, transcending their social status and lineage.

7 Hymn384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Meditation • Deuteronomy 29:10-15

Reading Plan • Deuteronomy 29

- 10 "You are standing today all of you before the LORD your God: the heads of your tribes, your elders, and your officers, all the men of Israel,
- 11 your little ones, your wives, and the sojourner who is in your camp, from the one who chops your wood to the one who draws your water,
- 12 so that you may enter into the sworn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which the LORD your God is making with you today,
- 13 that he may establish you today as his people, and that he may be your God, as he promised you, and as he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 14 It is not with you alone that I am making this sworn covenant,
- 15 but with whoever is standing here with us today before the LORD our God, and with whoever is not here with us tod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선택된 자 들에게 선민이라는 혈통보다 더 중 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The elect are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n God's covenant. What could be more important to the elect than the special lineage of being the chosen people?

내 언행과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켜 주실 만한 모습입니까?

Are your words, deeds, and life acceptable to God in order to be included under His covenants and oath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열린교회, 김규현(CA)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Someone Who Goes Beyond the Law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통'이 아닌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과 구별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에 의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유대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Plinius)가 로마 황제 트라얀(Trajan)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하게 조사해 본 후,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함으로써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 윤리적 삶이 칭송 받을만했음을 로마의 정치가로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정착해 나가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직과 신용, 거룩과 순결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정직과 신용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미국 이민 사회에서 반영되는 교회의 모습은 '믿는 것들이 더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지독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돈 자랑질 하기 바쁘다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자화상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not based on "lineage" but on "covenant." God blesses those who believe in His promises through their obedience and action to live according to His Word. He also promised to make them as God's children when they glorify God. God made a covenant of blessing if they live a sanctified life in Canaan. He would give special blessings to the Israelites.

When the early church was being persecuted by Rome, Plinius, the governor of Judea, sent his report to Roman emperor Trajan. Plinius was a Roman statesman and he reported that the spiritual and ethical life of the early secret Christian society was admirable. This was after his careful examination of Christian communities. He said "they live above the law." As Christianity settled in Roman society, Christians were regarded as a symbol of honesty, trust, holiness, and purity. Having said that, in this day and age, does the identity of a Christian symbolize honesty and credibility? Sadly, the image of the Korean church reflected in the American immigrant society is that "the people who go to the church are even worse, and they are busy quarreling and boasting about money whenever they get together." Isn't this our honest self-portrayal? Those who participate in God's covenant must have holiness to be set apart from the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মূর্ম্ভ Thu **27**

2022 October

선택

The Choi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스라엘이 선민일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은 심판을 초래할 것이나, 회개하면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명확 합니다. 불순종은 심판을, 회개는 회복을, 순종은 번성과 축복을 가 져옵니다.

묵상·신명기 30:15-20

통독·신명기 30장

- 15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 나니
- 16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 17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 18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 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 19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 20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 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Reading Insight

Even though Israelites are the chosen people, their disobedience will result in judgment. However, if they repent, the covenant will be restored. God's Word i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Disobedience brings judgment, repentance brings restoration, and obedience brings prosperity and blessings.

Hymn449 Trust and Obey

Meditation • Deuteronomy 30:15-20

Reading Plan • Deuteronomy 30

- 15 "See, I have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good, death and evil.
- 16 If you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command you today, by loving the LORD your God, by walking in his ways, and by keeping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and his rules, then you shall live and multiply, and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the land that you are entering to take possession of it.
- 17 But if your heart turns away, and you will not hear, but are drawn away to worship other gods and serve them,
- **18** I declare to you today, that you shall surely perish. You shall not live long in the land that you are going over the Jordan to enter and possess.
- 19 I call heaven and earth to witness against you today, that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 and curse. Therefore choose life, that you and your offspring may live,
- 20 loving the LORD your God, obeying his voice and holding fast to him, for he is your life and length of days, that you may dwell in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to give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선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5, 19절)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our choices that God has given us? (vv. 15. 19)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 게 만드는 세상적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What are the worldly temptations that turn my heart away from Go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A Moment's Choice Determines 10 Years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에 대한 정의로 언급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생의 정의일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진학, 취업, 결혼, 이민 등 인생의 중대사뿐만 아니라 쇼핑, 식사, 업무 등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오래전 모 전자회사 TV 광고 카피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결과를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쫓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것인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될 것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가될 것인가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가될 것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습니다. 선택은내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합니다.

"Life is a traveler's road." "Life is unfinished." These phrases are often used to define life. However, "life is a series of choices" is probably the most accurate description of life. People are always faced with situations where they have to make decisions. People not only have to make decisions on important matters regarding marriage, employment, and immigration but also on simple matters regarding shopping, dining, and daily work. "A moment's choice determines 10 years" was a catch-phrase of one electronic company. It means that a right choice leads to a right result. You won't regret using good judgment for small or big matters.

God requires us to make a clear decision before God. "Will you become a person who commits the sin of not praying or be the one who prays?" "Will you follow God's Word and live obediently or destroy the church?" "Will you be the one that leads or that gets dragged here and there?" He is asking you to choose whether you want to live a distinguished life as a Christian or to become assimilated into the world. God has set before us "life, blessing, death, and woe." We are the one to make a decision. And it is up to u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ur choices br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8

2022 October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God Who Walks before 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 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에서 행하시며 그들의 앞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묵상·신명기 31:1-8

통독·신명기 31장

- 1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 2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백이십 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 3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 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 에서 건너감지라
- 4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 5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 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 8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 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Reading Insight

If Joshua, the new leader of Israel, proceeds to obey God's words and commandments, God promises to walk in front of the Israelites and prepare the way for them.

7 Hymn312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Meditation • Deuteronomy 31:1-8

Reading Plan • Deuteronomy 31

- ¹ So Moses continued to speak these words to all Israel.
- And he said to them, "I am 120 years old today. I am no longer able to go out and come in. The LORD has said to me, 'You shall not go over this Jordan.'
- 3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go over before you. He will destroy these nations before you, so that you shall dispossess them, and Joshua will go over at your head, as the LORD has spoken.
- ⁴ And the LORD will do to them as he did to Sihon and Og, the kings of the Amorites, and to their land, when he destroyed them.
- ⁵ And the LORD will give them over to you, and you shall do to them according to the whole commandment that I have commanded you.
- ⁶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fear or be in dread of them, for it is the LORD your God who goes with you. He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 7 Then Moses summoned Joshua and said to him in the sight of all Israel,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o with this peopl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has sworn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and you shall put them in possession of it.
- 8 It is the LORD who goes before you. He will be with you; he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Do not fear or be dismay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6-7절) What kind of faith does God require in the life of a believer? (vv. 6-7)

인생의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 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6, 8절) Why shouldn't God's people be afraid of any hardships in life? (vv. 3, 6,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CA)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황승일(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돌이켜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며 인생의 고비가 많았습니까?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나 사라질까 근심하고 걱정했던 순간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업과 직장, 가정과 자녀, 건강과 금전, 인간관계와 신앙 문제의 고통이 극심해서,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이,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절감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입에서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 어휴 죽을 뻔했네!" 말 그대로 우리는 정말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숱한 고비를 넘기고 지금 살아 있으며, 이 험한세상 이제껏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이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곧 오늘 하루의 새 생명을 내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 보다 와서 내 앞길을 지키고 예비하고 계셨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분에 넘치는 축복을 베푸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과 정복당하는 가나안 족속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살아가는 나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선택된사람입니다.

God is with us in every moment of our lives and goes before us. Looking back on our memories, how many challenges have we faced? We have been through times when we wanted to die and been through pains that felt worse than death. How many times have we wondered when this pain and sorrow will end? We have experienced times where pain caused by work, family, health, financial situations,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faith was so extreme that we fell and didn't have strength to stand back up. Looking back, we can recall many moments when "Oh, I almost died!" came out of our mouths. We have overcome so many difficulties, and it is a blessing that we are still alive. Being able to open our eyes in the morning and breathe is proof that we are alive and that God has blessed us with a new life today. All of this is proof that God is before us, that He prepares and secures our path.

God does not always seem fair. Who am I for Him to pour such blessings on me? God was not fair to the Canaanites that were conquered by the Israelites. We are the chosen ones, living with God's generous grace. It is not fair that we are receiving such gra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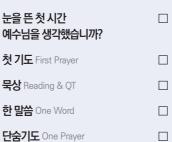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일·Sat

2022 October

순종 –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

Obediencethe Only Way to Lif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모세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자신의 허물에 대한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 새379장(통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묵상·신명기 32:45-52

통독·신명기 32장

- **45**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 치고
- 46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 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 47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 48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49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 50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 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 51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 52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 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Through the prophecy of Moses declaring judgment against Israel's disobedience and betrayal, he also warns against Israel's disobedience and reveals that turning against sin to obey God is the only way to life. Even Moses could not enter Canaan as punishment for his transgression and had to die in the wilderness.

Meditation • Deuteronomy 32:45-52

Reading Plan • Deuteronomy 32

- 45 And when Moses had finished speaking all these words to all Israel.
- 46 he said to them, "Take to heart all the words by which I am warning you today, that you may command them to your children, that they may be careful to do all the words of this law.
- 47 For it is no empty word for you, but your very life, and by this word you shall live long in the land that you are going over the Jordan to possess."
- 48 That very day the LORD spoke to Moses,
- **49** "Go up this mountain of the Abarim, Mount Nebo, which is in the land of Moab, opposite Jericho, and view the land of Canaan, which I am giving to the people of Israel for a possession.
- 50 And die on the mountain which you go up, and be gathered to your people, as Aaron your brother died in Mount Hor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 51 because you broke faith with me in the midst of the people of Israel at the waters of Meribah-kadesh, in the wilderness of Zin, and because you did not treat me as holy in the midst of the people of Israel.
- 52 For you shall see the land before you, but you shall not go there, into the land that I am giving to the people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장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46-47절) Why did Israel's glory fail in the Promised Land of Canaan? (vv. 46-47)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이스 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 을까요?

What lesson did God want to teach the Israelites through the death of Mose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CA) 유바 사랑의 교회, 강혜성(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영원한 축복의 언약의 보증

Guarantee of the Covenant of Eternal Blessing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담임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집안 사방이전 세계에서 공수해온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그분에게는 자부심 그 차제였습니다. "술병 대신 다른 것을 장식하는 취미를 가져보면 어떠하겠냐"라는 담임목사님의 권면에, 이 분은 자신이 교회를다니기 위해 술병을 치워야 한다면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며 반박을 하더니, 자기 말에 충실하게도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심방하여 예배를 마친 후 식사를 하려 하는데남편 집사님이 술을 한 병 가지고 오더니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자기는술이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기에 지금 술을 먹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커녕 내 취미와 습관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절대적 순종이나, 우리가 행하는 순종은 조건부, 제한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나도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조건부 순종'이고, 어느 선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제한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절대적 전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며, 그 순종이 영원한 축복의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Long time ago, when I was a junior pastor, a senior pastor and I visited the house of a member who recently registered with the church. When we entered the house, we saw that the whole house was covered with wine bottles from all over the world. He was proud of the decorations. The senior pastor recommended that he decorate the house with other things instead of wine bottles. He replied that he would not go to church if he had to put away his wine bottles. He kept his word and never came back to church after that. When I visited another deacon's house, the deacon brought out an alcoholic drink and declared he cannot eat without drinking.

That we are unable to even give up our hobbies for our faith reflects the poor state of our faith. The type of obedience God commanded us is an absolute obedience. However, what we are doing is conditional and limited obedience. Conditional obedience is when we are willing to do something for Him if God is willing to do something for us. Limited obedience is when we are only willing to go so far within our comfort zone for Him but not beyond that. However, absolute obedience is based on the notion that we do "whatever God says." Obedience is following whatever God says, and that obedience is the covenant of eternal bles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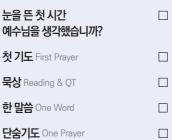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30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지혜를 주소서"

한명훈목사(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FL)

옛날 한 나라에, 한쪽 눈과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도 아주 작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가는 화가를 불러다가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화가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두 다리로 바로 서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건장한 모습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왕은 이를 보고 우롱당한 느낌이 들어 화가를 처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려 온 화가는 첫 번째 화가가 왜 실패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적인 왕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모욕감을 느껴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불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을 만족시켜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고민하다가 그가 완성한 그림은 말을 타고 활을 겨누어 사냥하는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다리 하나는 말의 반대편에 있어 보이지 않았고,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었기에 한쪽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왕의 모습에서 누구도 그의 키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 초상화를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가진 지혜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일, 특히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과 행동이라도,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상처만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첫

번째 화가의 '진정성 없는 찬사'나, 두 번째 화가의 '사려 깊지 못한 직언'이 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지혜로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특별히 환우들을 심방하는 날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편 141:3).' 야고보서 5장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5절)"라고 가르칩니다.

예쁜 말씨로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림 한 점, 손길 하나에 누군가가 '하나 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ваед}·моп

2022 October

이스라엘의 영광

Israel's Glor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모세는 죽음을 맞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축복을 기원하며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탁월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야 했습니다.

♬ 새552장(통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묵상·신명기 33:26-29

통독·신명기 33-34장

- 26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 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 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 28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 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 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네 영광의 칼이시로다네 대적이네게 복종하리니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Reading Insight

Before his death, Moses blessed the twelves tribes of Israel and foretold their future. Israel had to proclaim God's glory by becoming an outstanding tribe with God's power and blessing.

☐ Hymn552 When the Morning Breaks Anew

Meditation • Deuteronomy 33:26–29

Reading Plan • Deuteronomy 33-34

- **26** "There is none like God, O Jeshurun, who rides through the heavens to your help, through the skies in his majesty.
- **27** The eternal God is your dwelling plac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And he thrust out the enemy before you and said, Destroy.
- 28 So Israel lived in safety, Jacob lived alone, in a land of grain and wine, whose heavens drop down dew.
- 29 Happy are you, O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the shield of your help, and the sword of your triumph! Your enemies shall come fawning to you, and you shall tread upon their back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부르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5, 26 절) "여수룬"의 뜻은 무엇입니까? Moses calls Israel "Jeshurun" and blesses them. What does "Jeshurun" mean? (vv. 5.26)

하나님께서 의롭고 올바른 자로 구 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 입니까? (29절)

What blessings does God give to those who are set apart as righteous and upright? (v. 2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는 세상이 읽는 성경책이여야 합니다

We Must Be the Bible the World Read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수론"이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일컫는 영광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후 번성하고 번영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롭게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증거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목격하기를 기대하셨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시대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빌리그래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읽는 성경책이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신앙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어야 했듯이, 우리들도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여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창12:2)"라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God called Canaanite—speaking Israel "Jeshurun." "Jeshurun" means the righteous and the upright, which is used to call the Israelites in a glorious way. After the conquest of Canaan, Israel had to prosper to testify to the blessing God gives to those set apart as holy and just. God expected the people around Canaan to witness God's glory, power, and encouragement through Israel. God wanted to show blessing and grace through Israel. Israel now had to be a witness to reveal the living God.

God gave the same mission and responsibility to the chosen Christians. Rev. Billy Graham once said, "We are the Bibles the world is reading: We are the creeds the world is needing: We are the sermons the world is heeding." Just as Israel had to reveal the glory and power of God through the conquest of Canaan, we must also settle in the world as Christians who conquer and change the fallen world. That is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that God gave to Abraham, the ancestor of Israel, "You will be blessed" (Gen 12:2).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무사 Reading & OT

단숨기도 One Prayer

한 말씀 One Word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10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주 소그룹 모임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 신명기 2:1-9, 17-19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 신명기 4:1-13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 신명기 12:1-3, 29-32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 | 신명기 20:10-20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 신명기28:1-6, 15-19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1 여는 질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때가 언제가 되든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십니까?

02 본문이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후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 겠다고 했던 언약이 가나안에서 4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서와 롯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에돔과 모압,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을 인정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사건 이후 다시 가나안에 입성을 시도하기까지는 38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2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본 이스라엘이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저들을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전멸당할 것이다. 저들과 싸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결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이십 세 이상 된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말했던 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8년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시며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어 집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과 권세는 인간의 힘과 상상을 초월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03 말씀속으로

- 1.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 2.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외에도 무엇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까? (5, 9, 19절)

04 삼속으로

- 1.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축복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요?

05 암송구절 신명기 2: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 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06 자녀와나눔

- 1.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늦어져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 2.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나요? 그런데 너에게도 친구의 그 모습이 있지는 않니?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새 520장(통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01 여는 질문

세상의 법과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법을 따르는 것에 우 선권을 두고 있습니까?

02 본문이해

본문은 가나안 입성 직전 모세가 행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써,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졌던 축복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민이스라엘을 위한 특권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크고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능력과 권세의 근원이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영광스러운 언약을 잊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번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며 그 법도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의 근본이자 인생의 안내자로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했던 의무이고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대로 순종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벗어나면 안되며,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식과 합리성과 내가 정해 놓은 삶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 즉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는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이라는 절대적 조건이 동반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지시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 자신의 판단과 주장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절대적 순종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
- 2.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1, 6절)

04 삶속으로

- 1. 하나님의 말씀 중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 나는 내 상식과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05 암송구절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06 자녀와 나눔

-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나요?
-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새67장(통31장) 영광의 왕께 새214장(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01 여는 질문

여는 질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요?

02 본문이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죄악으로 더럽힌 각종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 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젖과 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와 축복이 그 땅에 흘러 넘치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증한모든 우상과 죄악의 척결이 선결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수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여야 했고, 그들을 유혹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되는 법도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명과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자식들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아픔의 강도는 분명히 다르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편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구별하여 선택해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사람이 두주인을 섬기지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혹이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히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못하느니라" (마 6:24),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과 재물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가장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 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편애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평생을 지켜 최우선적으로 행할 계명과 법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3절)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 후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상을 척결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 까요? (29-31절)

04 삶속으로

- 1.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나만 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은 내게 있어 전적인 사랑과 경배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대상인가요?

05 암송구절 신명기 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06 자녀와 나눔

- 1. 그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나요?
- 2.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354장(통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새358장(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01 여는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될 수 있습니까?

02 본문이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관계된 규례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성전(聖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악을 응징하고 제거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무분별한 파괴와 수탈은 절제하여야 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전쟁을 치르되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불의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인데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남에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내려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전쟁이기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싸움은 나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싸움꾼이 되라고 하실까요? 바로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즉 좋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12절 말씀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뜻에 굴복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불면의 진리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린다는 절대 진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종목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 '미움과 시기와의 싸움', '교만과 탐욕과의 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의 싸움', '불의와의 싸움' 입니다. 좋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좋은 싸움이지만 이기기 힘든 싸움이기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가 내거는 전쟁의 기치가 되어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와 믿는 자의 덕을 세우는 것이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하나님께서 가나안 영토 밖의 민족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제의하게 하셨으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 서는 진멸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18절)
- 2.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모든 행위와 규범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17절)

04 삼속으로

- 1.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에게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05 암송구절 신명기 20:17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06 자녀와 나눔

- 1. 내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나요?
- 2.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나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01 여는 질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세상적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02 본문이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직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순종의 결과인 축복과 불순종의 결과인 저주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며, 모든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로써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선민일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은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명확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며, 순종의 결실은 번성과 축복이었습니다.

'순종'과 '언약의 성취'라는 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조건적 미래 시제가 됩니다. 현재에 순종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의 미래에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는 일 보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생활의 어려움이 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학, 취업, 결혼, 이민 등 인생의 중 대사 뿐만 아니라 쇼핑, 식사, 업무 등 하루 하루의 일상에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쫓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것인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될 것인가 그냥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자가 될 것인 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습니다. 선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냐, 내 의지를 따라 사는 불순종이냐의 양자택일입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03 말씀속으로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두신 선택의 조건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 15절)
- 2.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어 버린 원인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13–14절)

04 삶속으로

- 1.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오직 내가 행한 선택에 의한 결과로 주어집니다. 내 선택에 대한 결과로 내게 는 과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책망과 징계가 주어질까요?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 해봅시다.
- 2. 내 과거의 올바른 선택에 의한 결과가 현재 공평하지 않게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05 암송구절 신명기 28: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06 자녀와나눔

- 1.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행한대로 그대로 내게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 2.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신가요. 아니면 불공평하신가요?



God Is Faithful to His Promises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Standing on the Promises I am Thine,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01 Opening Discussion

Do you believe that God will surely complete His promises in His time?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and conquer it. God promised Abraham and Isaac, the ancestors of the Israelites that God will give the land of Canaan to the Israelites and He kept his promise a couple of hundred years later. The promise was finally completed after 40 years in the wilderness following the exodus from Egypt and arriving at Mount Sinai. God also remembered the covenant with Esau, the brother of Israel and Lot, and He gave the lands to the descendants of the Moabites and Edomites. This proved that the promises of God go beyond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and His promises are surely completed for every person.

It took 38 years just to make an attempt to enter the land of Canaan after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blamed and disobeyed God by the negative reports from the spies at Kadesh–Barnea. This is the result of the behaviors among the Israelites who did not fully trust and obey God. If the Israelites trusted God's will and power and fully obeyed God, they could have conquered the Canaanites in 2 years. However, after witnessing how big and strong the Canaanites were and how their fortresses were solid and strong, the Israelites felt defeated and discouraged. They blamed God that they would never be able to defeat the Canaanites. The Israelites talked among themselves that they would be totally destroyed by the Canaanites and that they would rather die in the middle of the wilderness instead of being killed by the Canaanites as they engage in battle. God let the predictions of the Israelites come true as they spoke it. Their fear, anticipation, and blame made it happen. As result, no one in the first generation of the exodus who was over 20 years old except Caleb and Joshua survived and entered the land of Canaan. However, after 38 years, the new generation of the Israelites developed a deeper faith that God will definitely complete His promises no matter what. Their absolute faith in God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God is faithful, true to Himself, and always sincere in His promises. Therefore, the promise God made with you will definitely be completed. However,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promise of God will be done in God's own will and God's own way.

We want God's promise to be completed in our time, in our favorite ways, and in our anticipated processes. We assume that it should be completed how we believe and how we pray. However the promise of God is completed in God's time, God's favored ways, and the best methods of God's anticipation. It would be the best blessing and grace to witness how God's promise is completed in God's own ways since God's will, power, and authority are transcended over human's. Even though it took over 40 years, God's promise on conquering the land of Canaan is completed. It was the best time for the Israelites to conquer the Canaanites. Let us trust that God surely keeps his promises in the best time and best ways.

03 Into the Word

- 1. What are the reasons for believers to not worry about anything in any situation? (v. 7)
- 2. How did God prove that He is faithful with His promises in other matters for the Israelites along with the conquering of the Canaanites? (vv. 5,9,19)

04 Into our life

- 1. Have you ever received answers to your prayers after faithfully enduring for a long time?
- 2. Do you anticipate God's blessings and grace to be completed in God's ways and time or in your ways and time?

05 Memory Verse Deuteronomy 2:7

For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He knows you're going through this great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he Lord your God has been with you. You have lacked nothing."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 1. Can you wait and keep praying to God even in the times when the answer to your prayers is delayed?
- 2. Do you believe that all the promised blessings of God in the Bible would be completed in God's time?



Whatever You Say



Come to the Saviour, Make no Delay Whosoever Heareth, Shout, Shout the Sound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01 Opening Discussion

Between the laws and rules of the world and God's laws and commands, which is more important to you? Which one do you prefer to follow?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is text is the conclusion of the first of three farewell sermons that Moses delivered right before his entry into Canaan. It refers to the blessings that were given when they obeyed God's commands. Moses instructs the Israelites to obey God's law that becomes the source of power and authority to make Israel a great and powerful nation.

God's law for Israel was to provide God's special providence to bless and prosper Israel. Setting apart Israel to be a holy chosen nation that worships and obeys God was to let all nations fear God and let all nations know that He is the true one and holy God. Therefore, the law was the foundation and guidance for the lives of the Israelites. God's laws were their duty and responsibility to keep and obey.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is simple. It is a relationship where God commands and humans obey. But aren't we obedient only to what we can accept when it falls under our common sense and logic? It means that the limits of obedience are set. We justify that even God must not deviate from common sense and rational thinking.

And it means my common sense and rationality and the standard of living are more important than God's will, right? In the Bible, there are many promises of God's blessings, namely, the covenant of a blessing. However, it is clear that God's covenant of a blessing sets a clear boundary of obedience. "Whatever God says," must be obeyed. There is no negotiation outside this condition. Whatever God says, directs, or commands, God's covenant must be fulfilled according to God's words, direction and order regardless of your logic, situations, emotions. and volition.

Conquering Canaan required absolute obedience. It was because the conquest of Canaan was impossible with the power and strength of man. However, the conquest of Canaan was

something God had already planned, and it was the path that God led with His power. Therefore, Israel had to absolutely obey God who was leading them. Our lives are entirely in the hands of God. If we truly believe and trust in God, all we have to do is obey "whatever God says."

03 Into the Word

- 1. What is the standard of obedience that God requires of his people? (v. 2)
- 2. What was God's blessing to Israel who kept the law? (vv. 1,6)

04 Into our life

- 1. Among God's commands, what are some things you can obey and some things you cannot obey?
- 2. Which do you trust more and make it as your living standard: your common sense, your knowledge, or the Word of God?

05 Memory Verse Deuteronomy 4:2

Do not add or subtract from the words I command you, but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give you.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 1. Do you believe that anything can be accomplished if God speaks and commands it?
- 2. Can you obey whatever God says?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O Worship The King All Glorious Above Jesus, My Lord to Thee I Cry To Jesus Who Redeemed Me My life, My Love I Give to Thee

01 Opening Discussion

We confess that we love God. But do you really love God wholeheartedly?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conquering the Canaanites and entering into Canaan,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destroy all idols that had filled the land with sin and that had polluted the land. Canaan was a land of blessings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at God had promised to give to Israel through Abraham, Isaac, and Jacob. God wanted this land to flow with God's good 'milk and honey'. When the land was filled with His righteousness, the abundance and blessings from God were to overflow in the land. Therefore, in order to have Canaan become a righteous nation ruled by God, all detestable idols and sins had to be eradicated in advance.

After Israel conquered Canaan, they had to get rid of all idols that could turn Israel's hearts away from God and remove all the sinful elements that would tempt them. God said that nothing should be more precious and be more loved than God, and there cannot be human laws that take precedence over God's commandments. You cannot serve God a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Just as a servant cannot serve two masters, so those who believed in God could value nothing more than God. Obeying God's commandments and laws had to be the top priority in life.

For humans, it is impossible to love and treat people or things the same. There is a Korean expression regarding the love of their children. There are no differentials between any children as all ten fingers feel the same pain if it gets bitten. But the intensity of the pain for each finger could be different. There are definitely children who are more sympathetic than other children.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value more and love more than a particular something. Likewise, not all people will receive God's love because there will be people who reject God's love. Those who love God, obey His Word wholeheartedly and act according to His Word, God considers them special and He values them. Jesus say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for ye cannot serve both God and riches" (Matthew 6:24). As Christians, we cannot serve both God and the world. I am not saying the world and wealth are horrible. As Christ-followers, our God should be honored and feared above all things and His name should be glorified. We ought to acknowledge all wealth is entrusted to me by God and I should use it to give glory to God. Those who love God the most will be loved by God, and those who exalt God the most will be exalted by God. It is a clear fact that God loves those who love Him. Therefore, it should be our deepest desire to live as a child of God.

03 Into the Word

- 1. What were the commandments and ordinances that Israel had to keep in Canaan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m? (vv. 1–3)
- 2. Why did God tell Israel to destroy idols as the first thing they ought to do when they entered Canaan? (vv. 29–31)

04 Into our life

- 1. If there is something you love and value more than God, it is an idol. What is your idol that you serve?
- 2. Do you love and honor God wholeheartedly, or is God for your convenience when you are desperate or in need?

05 Memory Verse Deuteronomy 12:32

Be careful to do all these words that I am commanding you, and you must not add to them or take away from them.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 1. Can you love God above all things?
- 2. Can you promise in your prayer that you will obey the Word of God and live accordingly?



Spiritual War of Israel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There's a Royal Banner

01 Opening Discussion

Is it your utmost value and goal to reveal the glory of God and lift up the name of Jesus Christ?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od gave regulations of war to Israel in order to conquer the land of Canaan. The campaign of Canaan's conquest was supposed to be a holy war to establish a nation where the righteousness of God prevailed. Israel, however, should not have done unrighteous things disgracing the justice of God even if Israel won the war by defeating the enemies. Therefore, this war was not an easy one which is why Israel sought the will of God as well as the help of God. That is the very reason why the spiritual war of Christians is difficult. There are many situations that obscure whether something is right or wrong. There is a time for us to give in to things which surely would be for my benefit. There is a time for us to be criticized even if we did the right thing. There is a time for us to give up things for someone else even if we desperately need them. There is a time for us to turn things down even if we have irresistible opportunities. There is a time for us to do things even if we don't want to.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our spiritual war, even though we must win this war, we always have to seek God's will and help. In general, the word "fight" has a negative connotation. God, however, gave Israel the strict commandment to fight. Fighting is not good. Then why did God ask his chosen people to be fighters? It is because fighting is not always bad. That is, there is a good war. 1 Timothy 6:12 explains this as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he good fight of Israel's faith was the proclamation of the desolation of those enemies against God, the unchangeable truth of the victory to those following and obeying God's will, and the absolute truth of God's reign with righteousness.

We have to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o be Christians witnessing God's justice. This fight is the fight that we must absolutely win to protect our faith in the name of God. There are events where we must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such as fighting against those who keep us from praying to God and reading the Bible, fighting lust of the flesh, fighting against

the lure of money, fighting against hate and jealousy, fighting against arrogance and greed, fighting against an unforgiving mind, and fighting against injustice. Let's get the victory of the good fight. Because it is difficult for us to win regardless of the good fight, we must fight the spiritual war with the faith of God's promise to be with us and with dependence on God's will. It is the flag of lifting the glory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that we must raise in our spiritual war. If the goal of our spiritual war is lifting the glory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building up the virtue of believers, God will give us victory and use us as a precious means of revealing the glory of God.

03 Into the Word

- 1. Why did God command Israel to destroy the Canaanites completely, even if he allowed the peace treaty with the peoples outside the land of Canaan? (20:17–18)
- 2. What must be the standard of deeds and rules of conduct in the Christian spiritual war? (20:17)

04 Into our life

- 1. What do I, as a Christian, have to eliminate completely in order to fight the spiritual war in the world?
- 2. Am I living for either the glory of God or for my glory, my satisfaction, and my pleasure?

05 Memory Verse Deuteronomy 20:17

But you shall devote them to complete destruction, the Hittites and the Amorites,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 1. When my thoughts and God's words are different, can I obey God's will?
- 2. Am I willing to give up what I like for God's sake?



Consequences of Obedience and Disobedience



Hear Longings
Trust and Obey
Are Ye Able. Said the Master

01 Opening Discussion

What are the worldly temptations that cause my heart to turn away from God even though I know I must obey God's Wor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srael was able to decide for themselves their future before God. God has made Israel's future in Canaan dependent upon Israel themselves. While He made it clear that blessings are the result of obedience and curses the result of disobedience, He said that all blessings and curses will be given as a result of Israel's choices. Identity and status do not always guarantee blessing and salvation. Even if Israel was a distinct chosen people, their disobedience would have brought judgment. God's Word wa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The result of disobedience was judgment, and the fruits of obedience were prosperity and blessing.

The words "obedience" and "fulfillment of the covenant" are inseparable. The condition of obedience must be fulfilled so that the covenant of God's blessing will be fulfilled in our future. Thus, these words become a conditional future tense. The condition of obedience in the present must be satisfied, so that the covenant of blessing can be fulfilled in our future. Amid the pain and anxiety of human life, God fulfills the covenant of blessing through obedience. Our life is not easy. There are far more things that don't happen than things that go according to our will. There are more prayers not answered than those answered even if we pray. We don't know how many times the difficulties we face in our homes, at work, in our businesses, in our studies, and in our lives seem insurmountable. We are blocked on all sides and there is no exit. But when there is no way out, we must rely on God for the only way out. Because in any circumstance, through absolute obedience to God, I fulfill the covenant that God has promised me. People always face a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choose something. Not only are you in the midst of life's major events such as going to school, employment, marriage, immigration, but also shopping, eating, and working – you always have to make day—to—day choices. In this way, when you make clear decisions and judgments about everything big and

small, and choose the right one, you won't regret it. God also asks us to make clear choices before Him. "Will you become one who prays or a sinner who rests in prayer?" "Will you follow the Word of God and live in obedience to it, or will you chase after the world and pursue the joy and pleasure of the world?" "Will you be a church-builder or a church-destroyer?" "Will you be the one who leads others or the one who is dragged around by others?" God asks us to choose between living the life set aside as the one who is called by God or being a person who is conformed to the world in compromise. God has placed "life, blessing, death, and curse" before me. The choice is simple. It is an alternative between obedience according to God's Will or disobedience to live according to my life and my will. Choice is in my hand. And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that choice.

03 Into the Word

- 1. What has God placed as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the choice before Israel? (28:1, 15)
- 2. Is there anything I think has been unfairly given to me in the present that are the consequences of right choices in my past?

04 Into our life

- 1. The blessings and curses of my life are given only as a result of the choices I have made. As a result of my choices, will I be blessed with salvation and eternal life, or will I be rebuked and disciplined? Let's be honest with ourselves.
- 2. Is there anything you think that the results of the right choices in my past have now been given to me unfairly?

05 Memory Verse Deuteronomy 28:1

And if you faithfully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being careful to do all his commandments that I command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 1. Do you believe that God knows everything I have said and done and will repay me exactly as I have done?
- 2. Is God always fair and fair to me, or is He unfair?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3022322**Country: **Switzerland**

Serving At: World Council of Churches

Home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North America

Kim, Jin Y.

The Rev. Dr. Jin Y. Kim is a missionary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the Coordinator of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based in Geneva, Switzerland. He was commissioned in the Spring of 2017.

At its 10th Assembly in Busan, South Korea, in 2013, the World Council initiated a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for the long-divided Korean peninsula. This was given organizational form in 2016. Dr. Kim coordinates a series of pilgrim teams that visit churches in the region to promote justice and peace. Peace and reunification in Korea are long-standing mission goal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its mission agency, Global Ministries.

Dr. Kim is an ordained elder in the Northern Illinois Annual Conference and pastored the Creston/Steward United Methodist Church in Steward, Illinois from late 2011 to mid-2017. He also served as an auxiliary faculty member in Old Testament Studies in the 2016-2017 academic year at the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He is a native of South Korea, born in Busan, and did his undergraduate college work there at Busan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the Master of Divinity degree from Hanshin Graduate Theological School in

Seoul. After three years in the Presbyterian pastorate in Korea,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pursue advanced studies in theology and Old Testament. He earned a Master of Art in Theological Studies degree from the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and Master of Theology and Doctor of Philosophy degrees from the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His ecumenical background has strongly equipped him for his role a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his work in Korea. "I was ordained in a Korean Presbyterian church; I went to a Lutheran seminary, and now I am a Methodist minister," he says.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a prophetic stance in it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its mission in the Korean society, such as urban ministry, social justi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o, I became interested in the ministry of social justice and peace in Korea."

Dr. Kim says he was drawn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ordination because of its strong emphasis on mission. "I came to understand," he says, "that Methodists are nothing but the people of mission." The second son with two brothers and a sister, Dr. Kim's family was poor and not Christian in his childhood, except for his mother and himself. He suffered from low self-esteem prior to his baptism into Christ. In baptism, "I heard the good news that God claimed me: 'You are beloved, you're precious, and you are worthy.' "He was also estranged from his father in his youth, but became reconciled before his father's death and after the father's own baptism.

"I believe that God has called me to participate in God's mission beyond the local church through my ecumenical engagement," Dr. Kim says. "I want to challenge myself by getting out of the comfort zone, and I want to continue to grow in the holiness of heart and life. God will continue to call me to join the healing stream of God's love, peace and justice." Dr. Kim is married to the Rev. Kyeong-Ah Woo, also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The couple has a young child, Micah Kim.

Contact info: Jkim@umcmission.org

사귐의 기도 22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 "존재의 기도의 6가지 열매 바뀜의 기도의 6가지 열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마주치면 죽어있던 우리 영은 깨어나 진리를 깨닫기 시작 한다. 그 깨달음은 진리를 위해 헌신하도록 이 끈다. 반대로 영성이 약해지면 우리는 오히려 고통 당한다.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 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좌절과 아픔을 겪는다. 바 울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고뇌를 로마서 7장에 그려 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1-24)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함으로써 속사람을 살려 내신다. 그분과 지속적으로 사귐으로써 속사람이 성장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행할 능력을 얻는다. 영성이 강화되면 육과 혼은 영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때 비

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인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유심히 관찰하며 꿰뚫어 보고 분석하고 질문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던 문제들을 의심하며 확인한다. '왜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들을 제기하면서 꾸준히 대답을 추구해나 간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빛을 비추어 진실을 발견하게 하신 다. 때로는 불분명하거나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도 중 무엇을 깨달았 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깨달음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점 검하고 또 이성으로 점검해야 한다.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더 고민하 고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확신에 이를 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영적 깨달음은 우리 내면의 본능적인 저항에 직면하기 쉽다. 대개 영적 깨달음은 그동안 편안하게 즐겼던 것들을 거부하도록 우리를 몰아세운다. 영성이 약하면 이 런 반대에 직면하여 타협한다. 반면 영성이 강한 사람은 깨달은 진리를 우직하게 실천한다. 이기적 욕심에 물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과 사귀어 갈 때 속사람 은 무럭무럭 자라난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된다.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여러가지 불편과 손해를 겪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준다. 여러가지 점에서 진리의 사람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다. 먼저, 진리의 사람들은 세상의 선전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비록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의 불의함을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의 삶과 뚜렷이 대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북해한다. 자신의 불의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여러가지 타락 양상 중 세상에 대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게 가장 심각한 타락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피하려 한다. 선하게 살면 사회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있다. 반면 진리를 따라 의롭게 살면 사회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뿐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사귐의 기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만을 기대하고 덤벼들어서는 안된다. 그기도가 결국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분명히 알고 그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 손해와 반대와 박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면, 그는 오히려 그 고난들을 반갑게 맞는다. 인생의 진정한 성취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있다.

진리의 사람들은 목숨보다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리를 버리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요, 진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다. 진리의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의언덕으로 EOSais C



신앙의 미명기에 주의원으로 변호사로 활약한 링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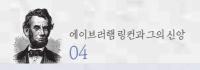
김명희 집사 _ 와싱톤한인교회, VA

유명한 신학자 Reinhold Niebuhr(라인홀드 리버)는 "Lincoln was the most original of American religious thinkers(링컨은 미국의 종교적인 사상가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링컨의 신앙을 설파했다. 그가 진정코 원초적인 신앙인이었다면 뉴 세일럼에 들어온 링컨은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자기가 신앙인이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뉴 세일럼에 들어온 것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또 진정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것이다. 그는 젊었고 세상의 온갖 것에 관하여 알고 싶은 열정의 사나이였다. 그는 22세부터 법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법과 사회질서 그리고 정치에 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었다. 하루는 스프링필드에 있는 경매장에서 블랙스톤 법전을 사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읽게 된 최초의 법학 서적이다.

링컨은 뉴 세일럼의 상가몽 강가 언덕에 무성하게 자라는 전나무 아래에서 공부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를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블랙스톤 법전에 몰두해 있었

다. 그러고는 깊은 상념에 빠져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곤 했다. 사람이 사는 일과 법의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의 시스템이 형성되는지에 대한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일하던 가게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나 우편국장직을 맡게 되어 겨우 생활을 유지했다. 한 달에 4불 50전인 월급이 모자라 강과 산을 측량하는 측량기사의 일도 했다. 23세가 되던 봄에 그는 일리노이주의 주 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 당시 스프링필드에 있는 상가몬 저널은 링컨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싣고 있다. "수줍음이 아직은 가시지 않은 젊은이이나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는 청년 정치가이다." 그러나 그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링컨이 청년 시절을 보낸 뉴 세일럼 사람들 중에는 그가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그가 국회의원이나 주지사가 되던지 아니면 법학을 열심히 공부하니 훌륭한 변호사가 되리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별볼일 없는 깡마른 거인으로 우스게나 하는 우울증세가 있는 자로 보았다.

1834년 상가몬 저널에는 주 의원 출마자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이름이 다시 보도되었다. 그가 주 의원에 다시 출마한 것이다. 8월 4일의 선거에서 당선자 세 사람 중에서 두 번째로 당선되었다. 이제 정치인이 된 링컨 25세의 링컨은 최초의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그는 부자 농장 주인 스미스 씨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뽑은 죄"라고 우스개를 하며 200불을 빌려 60불짜리 정장을 사고 일리노이주의 수도인 반달리아로 떠났다. 주 의원으로 일하며 그는 많은 정치인을 맞나 친구가 되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후에 링컨의 정적이 된 스티븐 더글러스 (Stephen Douglas)였다. 키가 작아 "작은 거인"이라 불리던 더글러스는 21세의 젊은이로 이미 주정부의 법무장관이 되어 있었다. 이 시절에 링컨을 알았던 어느 로비스트는 그를 "깡마르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는 못생긴 시골뜨기였으나 민첩하고 알수 없는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구나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월에 주의회가 휴정에 들어가면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뉴 세일럼으로 돌아와서 측량기사 일을 계속했다. 생활비와 옷 값 그리고 법학 책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절에 링컨은 앤 루틀리지(Ann Rutledge)라는 처녀와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갈색 머리와 푸른 눈의 아름다운 루틀리지 처녀는 알수없는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10세에 어머니를 잃고 19세에 누나를 잃은링컨은 26세의 청년으로 첫사랑의 여인을 또 잃은 것이다.

젊은 주 의원으로 일하며 그는 공화당의 전신이었던 휘그당(Whigs)에 가입했다. 보수적인 민주당에 비하여 휘그당은 진보적인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이었다. 하루는 스프링필드에서 조지 호우거라는 주 의원과 정치 논쟁을 하게 되었다. 호우거 의원은 휘그당 소속이었다가 연봉 3,000불짜리 자리를 얻기 위하여 민주당으로 옮겨간 사람이었다. 냉철한 논리를 세워가던 링컨의 논쟁에 몰린 호우거 의원은 "뻔질나게 잘난 척하는 햇병아리 의원을 혼을 내어주어 머리를 식혀주겠다"라고 인신공격에 나섰다. 링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올라가 "나도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 것을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연봉 삼천 불짜리 직위를 얻기 위하여 정치 이념을 바꾸고 노한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는 죄의식속에 살지는 않겠소"하고는 걸어 나왔다. 링컨을 지지하던 동료 의원들은 손뼉을 치고 그를 어깨에 메고 의사당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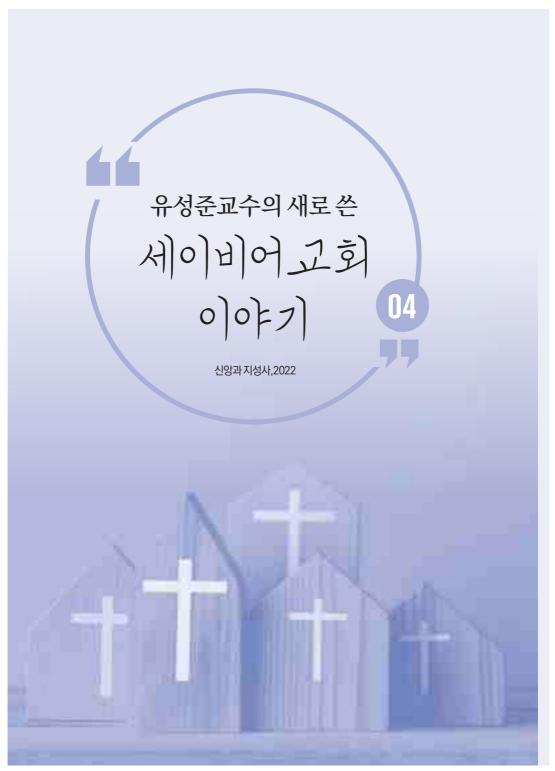
뉴세일럼에 정착한 후 링컨의 삶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다. 그는 바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법학 공부를 하고 정치계에 들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바쁜 사람이었다. 그는 법학 책을 읽고 셰익스피어 시집을 읽으며 탄탄대로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다. 그 해 8월 선거에서 그는 재선되었다. 그리고 1836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주정부에서 법관으로 일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그러고는 친구인 스튜워드를 파트너로 변호사 사무실을 시작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1839년 그는 장래에 부인이 될 메리 토드 (Mary Todd)를 만난다. 그녀는 켄터키의 부유한 집안의 출신으로 장밋빛 얼굴을 한 21세의 처녀였다. 링컨은 주 대법원에서 노예 문제 소송으로 유명해진 베일리 대 크롬웰케이스로 법정 논쟁에 들어갔다. 이 케이스는 크롬웰이 베일리에게 흑인 소녀를 노

예라고 판 사건이다. 흑인 소녀 편에 서게 된 링컨은 "흑인 소녀가 노예라는 확실한 증거 없이" 매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흑인 소녀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 1842년과 43년 사이 링컨이 대법원에서 한소송 케이스 24건 중 17건을 승소하는 실적으로 링컨은 성공적인 변호사로 일리노이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12년 전에 떠도는 나뭇조각처럼 상가몬 카운티에흘러들어 온 링컨, 친구도 돈도 없는 무일푼의 과객으로 통나무배에서 월 10불의 노동 일을 하던 링컨은 이제 변호사로, 주 의원으로 또 결혼도 하여 가정을 이룬 지역사회의 명사가되었다.

뉴세일럼 시절의 링컨은 신앙과 별 관계가 없는 삶을 영위한 듯하다. 그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정치 활동에 온 정성을 기울인 듯하다. 그런 이유로 그는 가끔 사람들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성경의 진실을 거부한 일은 없다. 또한 나는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곤 하였다. 그는 교회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아동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출생 시부터 12세까지의 삶이 성년이 된 후의 일생을 지배한다고 한다. 링컨은 어머니 낸시 행크스와 의붓어머니 사라 부슈의 깊은 신앙의 체계를 받은 바 있는 사람이었다. 두 어머니의 깊은 신앙과 사랑은 링컨의 가슴 깊이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어머니의 '원초적인 신앙'은 켄터키의 깊은 산속, 통나무집 어두움의 신비처럼 링컨의 영혼에 깔려있는 신앙의 바탕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편집자주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신앙》 연재를 시작하는 김명희 집사는 시인이며, 번역문학가로,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조지워싱톤대학에서 심리학과 창작을 공부했다. 그녀는 국무성에서 통역관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시인으로 등단하였고, 영시를 한글로, 한어시를 영어로 다수 번역했으며, 이상(李箱)의 오감도(烏瞰圖)를 영어로 번역, 출간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링컨의 전기를 읽고 매료되어 워싱톤 중앙일보에 〈링컨 스토리〉를 연재했다가 후에 〈에이브러햄 링컨〉 (도서출판선)을 출판했다.



세이비어교회의 핵심사역원리 1

세이비어교회가 1970년대 중반 12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할 때 코스비 목사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 는 핵심 원리와 실천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를 요약한다 면, 내적인 여정(영성)과 외면적 여정(삶/사역), 그리고 이 둘을 합한 통전적인 함께하는 여정(공동체/소그룹 미션 그룹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이비어교회의 핵심 사역 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적인 여정(The Journey Inward)

내적인 여정은 매일, 정규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실천함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을 통해 계시되고 표출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내적인 여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하고 모든 이를 동등하게 보는 눈을 갖게 하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권익을 도모하게 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리더십을 갖기 어렵고, 성령의 권능과 도움 없이는 이런 리더십은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영성을 얻고 성령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훈련해야 한다. 매우 단순한 것 같으나 미국 교회의 상황에서 매일 기도하는 평신도를 목격하기는 쉽지 않다. 안수 받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매일 의도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만나기 힘들다.

현대 서구사회와 문화의 강조점은 외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 내고 성취하는 것이 기 때문에 강조되는 가치는 행위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내적 성숙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계문명화 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도적인 기도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매일 눈뜨고 일어나면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테크놀로지에 접하여 한 번 구속당하게 되면 해방되기 쉽 지않다.

세이비어교회를 통해 배우고 얻는 좋은 가치는 중심을 찾는 기도, 침묵의 기도이 다. 나는 세이비어교회를 만나기 이전에는 침묵기도나 관상기도 또는 센터링 중심기 도에 대해 배우거나 들어본 적도 없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이 시대가 생산성과 성취 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침묵기도는 자신의 중심에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 이다. 여러 가지의 기도 종류가 있으나 침묵기도야말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 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을 비우는 것이다. 세이비어교회는 데이스프링 침묵수양관(Dayspring silence retreat center)을 통해 침묵기도의 훈련과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침묵기도를 통 해 경험하는 새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 에서 실천하는 것을 체계화되도록 연습한다. 내적 여정은 외적 여정을 설명하는 기반 이 된다.

2 외적인 여정(The Journey Outward)

외적인 여정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도 록 한다. 외적 영성의 여정은 특별한 재능과 소명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 니.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여정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명은 특정한 이들 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자격은 자신을 내어놓고 개 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가능하다.

고든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각자에게 특수한 은사를 주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 게소명 받을수 있는 특수한 재능과 자질을 갖게 했다. 다른 피조물을 가질수 없는 특수한 것을 각자가 가지므로 예수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계속적인 창조에 대해 우리가 받은 재능과 자질을 나눔 없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될수 없다. 이것은 깜짝놀랄만한 진리이다"라고 말하였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다른 이들을 위한 사역, 외적 여정, 표현과 봉사의 여정도 중요하다. 이것은 만인제사장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과 소명을 받고 다른 이를 위해봉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참여해야 하고 나에게 부여된 소명으로 헌신, 봉사해야 한다. 이것은 함께 하는 여정을 통해 가능하다.

3 함께하는 여정(The Journey Together):

함께하는 여정은 언약을 맺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가능하다

소그룹 미션 그룹(Mission Group)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멤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무한한 영적 파워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소그룹은 다양성 있게 형성되는데 대부분 4-5명으로 구성한다. 소그룹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여 참여한다. 소그룹은 4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개인적 성장과 영적 성장, 사랑 안에서 소속되는 것, 나눔의 사역을 위한 재능 기부, 다른 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소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4 세이비어의 모델을 전통적인 기존교회의 갱신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세이비어교회의 사역원리는 모델을 답습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을 이해하고 각자의 목회지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세이비어교회의 원리를 자기화하여

한국교회 상황에서 창조적 이해와 적용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 종류의 틀 의 전환(paradigm shift)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첫 번째 전환은 내적인 여정(Inward Journey)이다.

영감과 정보 전달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영성을 실천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내적인 영감을 받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실천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이다. 즉 예배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영감을 받는데 국한하지 않고 영적 실천 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도모하는 것이다. 설교와 기독교 교육,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와 통로가 중요하다. 우리가 은혜받고 깨달은 워 칙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를 지도하거나 이끌 수 없다. 실천을 해서 구체화하 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가시화할 때 진정한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센터링 중심기도, 렉시오 디비나, 영성일기 쓰기, 큐티 등 실천적인 영적 훈련과 공동체적 구 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② 두 번째 전환은 자원봉사 프로젝트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따르는 삶의 관 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외적인 사역이 단순히 자원봉사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분별 력(재능과 소명 찾기)을 갖도록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명상과 기도)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구체적인 사역과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 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과 은사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우리의 재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새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세 번째 전환은 함께하는 공동체(Journey Together)이다.

일상적인 교제(Fellowship)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면에서 연결 되는 밀도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친교를 많이 강조하 지만 깊은 교제를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을 연결시켜 하나님

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가 세이비어교회에서는 소그룹 미션 그룹이다. 이 소그룹을 통해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세가지의 서번트리더십의 핵심원리인 내적인 여정, 외적인 여정, 함께하는 여정을 통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현대사회의 상황, 문화현상에 개인주의가 편만하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의 전환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고 교회 갱신에 이바지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도전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쉽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1분묵상

정홍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1분묵상 요한1서 4장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세상 물정을 좀 알아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목포에서 제주 가는 뱃삯 정도만 가지고 무작정 무모하게 보름 정도의 일정으로 무전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 뱃삯은 안 내고 승선했다가 걸리면 가차 없이 물에 집어던져 넣는다는 정보가 있어 뱃삯만은 정식으로 내고 나머지는 거지 행색으로 무임승차에 문전 걸식을 하면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께 도움을 청하고 갖은 세상의 고생을 하고 집에 거지털뱅이가 되어 돌아왔을때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고생이 많았겠느냐고 하면서 진수성찬 저녁상을 차려준 밥상을 대하고 이 밥그릇 이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직접 크게 절감하면서 크게 철이들었던 기억이 있다.

효자란부모의입장과처지를같은심정을가지고헤아리는자에대한호칭이아닐까? 부모님이 잔소리 하기 전에 자기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어른스럽게 공경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절 바르게대하게 되는 것 같다. 맨날 부모에게 돈이나 뜯어가고 속을 썩이던 아들도 군대를 다녀오면 철이 든다고 하고 결혼을 해 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고들 한다.

그러면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힘들 때 나 자신이 이렇게 힘드니 교회 재정이 어떨까? 나보 다도 더 힘든 가정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미국의 어느 신문사 기자가 거지 행세를 하고 부잣집 동네에서 구걸하였더니 당장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쫓겨나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동냥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 이 도와주고 심지어 동네 거지 동료가 와서 적선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5월 중순 가정의 달도 지나가고 있다.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과 사명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기대와 소원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조금 더 철이 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 을까 생각해 본다.

1분묵상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씻김의 철학

요즈음은 매일 아침저녁 하루에 한두 번 목욕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어려서는 일 년에 한 번 그것도 12월 연말에 한번 목욕을 가면 목욕 물통 하나와 깔판 하나 차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안 계신 관계로 어머니와 여탕을 같이 가곤 했는데 얼마나 민망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절로 난다.

좀 커서 미국 이민 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가곤 했는데 끝나고 나올 때면 얼굴이 어린아이 뺨같이 뽀얗게 분홍색이 되곤 했다.

요즈음은 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어디서 때가 그리 많이 나오는지 먹은 것은 다 때

가되어지는 것같다.

씻어도 씻어도 나오는 때를 보며 바로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원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였건만 매일 생겨나는 잡 초 같은 다 범죄로 내가 진정 구워받았나?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의구심마저 들곤 한다.

모든 인생의 최대 난제였던 죄의 문제는 믿음의 확신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는 늘 기초마저 뿌리가 뽑힐 지경이다.

요즈음처럼 코로나19재난으로 전 세계가 아니 믿는 자에게조차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에 자주 회의가 밀려 오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의 보혈피공식을 적용하여 문지방에 피를 바른 자처럼 당당히 희게 하여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각성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그러기에 성전 예배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1분묵상 시편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줄줄이 붙어 사는 삶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오래도록 틀어박혀 살다가 요즈음은 가게에 나와 약간의 전화 오더를 소화하며 지내고 있다.

우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좋고 손님들을 가끔 만나니 좋고 점심 까먹는 재미도 좋고 한마디로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선비처럼 혼자 책 읽고 사색하는 것을 유일한 오랜 취미로 알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대학 시절 유네스코 학생 클럽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점차 변화되었고 이민 초기 개인적으로 성령세례 체험을 하면서 기질이 크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다 교회라는 이름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나는 특별히 연합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여기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다 배움이 별로 없는 어부나 욕 먹는 세리를 제자 삶으셨고 죄인의 집에서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고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을 불러서 회복 하나 되게 하셨음을 본다.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어디에도 홀로 떨어 진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 모두가 하나로 한 길로 한 성벽으로 한 생명 수강으로 이어 짐을 보면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도 보다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겠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기도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연합되기를 소원해 본다.

그러기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도 귀하지만 성전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은 더욱 귀한 일이라 생각해 본다.

고독한 신앙생활이 믿음의 입구라면 더불어 살아가는 연합된 신앙생활이 그 열매 맺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서로가 함께 하기에 이가 시리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동아줄 역할이 되었던 것 같다.

1분묵상 요한복음 11장 25-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처기누설

여보말좀하세요.

언젠가 책방에서 책을 이리저리 고르다 보니 이런 책 제목도 있었다 대개 남자들은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면 여자들은 말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이 일반 적인 것 같다.

오랜만에 맛있는 요리를 해놓아도 여보 오늘은 정말 맛있네 여보 고마워라고 하는 경우는 연속극에는 자주 나오겠지만 실제 남편에게 들어보기는 어렵다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밥까지 비벼 먹는다면 맛있게 요리한 것이 분명하다 사실 나 자신도 때때로 신명 나게 정신없이 떠벌이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 아내로부터 불만을 당하기도 한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셨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펼치지 지 않았을 것이다.

온 우주를 향한 뜻 우리 인생을 향한 뜻 다시 말해 천기가 누설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으면 이름 석 자와 그가 한 말밖에는 남지가 않는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한 듯 몸에 전율이 흐른 다. 우리에게 보물섬 지도가 펼쳐지는 순간이다.

말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

좋은 말은 좋은 생각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본다.

적당한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은 멍에를 풀고 해방되어 야겠구나 생각해 본다.

기쁨의언덕으로 EOSart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u>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김태호,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도,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정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네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담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딱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영진호, 847-797-1144) 하이드딱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운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고레이스벨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门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괌)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I-II	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4-146	29		33	29		12
30		147-150	30		34-35	30		13
31		주일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이보영, 조기현, 조선형,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히금숙, 조윤희❖ 편집문의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강현중 목사 (토랜스연합감리교회, CA)

❖ 주일 칼럼

김영봉 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오치용 목사 (시카고예수사랑교회, IL) 이준협 목사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GA) 한명훈 목사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FL) 홍삼열 목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